

“김포·파주 집값 계속 오르면 규제지역 지정” 17



박철웅 이사장 “농업 기술이전 매출 5배 늘릴 것”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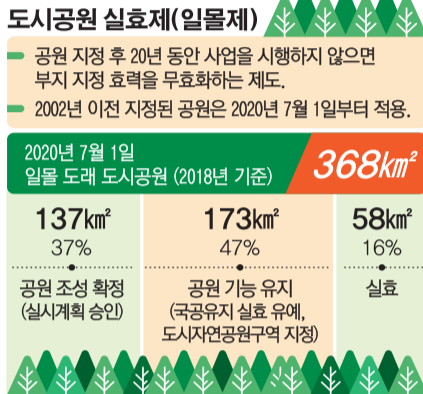
코스피 (26일 전주 대비) **2134.65** (-6.67P)
코스닥 **750.58** (+8.55P)
환율 (달러당 원화) **1200.60** (-9.00원)
금리 (국고채 3년물) **0.811%** (-0.073%p)

일몰제 공원 80% 존치 8년 뒤에나 보상 '갈등'

<368㎢ 중 320㎢>

스페셜 리포트

내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발효
실효 피해도 공원구역으로 지정
소유자들 “보상 늦추려는 꼼수”
“지방채 발행해 보상 서둘러야”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보존과 재산권 보호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7월 1일, 전국에서 2000여 곳 가까운 미 집행 도시공원의 운명이 엇갈린다. 이날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효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부지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 결정 효력을 잃는다. 공원 부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놓고 보상·진척 없이 땅을 놀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도시계획법에선 2002년 법 제정 이전 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을 따져 실효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를 뒤가 ‘운명의 날’이 된 이유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일몰제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그 땅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2018년 기준 1987곳으로 총 넓이가 368㎢에 이른다. 일몰제 대상 부지 가운데 58㎢(16%)는 실효가 확정됐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37㎢(37%)에는 공원 조성사업을 확정했고 나머지 173㎢(47%)는 실효를 유예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불씨는 여전하다. 실효를 피한다고 해도

바로 보상 등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확보 방안으로 꺼내 든 ‘도시자연공원구역(공원구역)’이 대표적이다. 고시 대신 토지 용도 구역을 바꿔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원 부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러면서도 일몰 기간은 없어 보상 재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를 뒤집으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나온다. 토지주들은 공원구역이 일몰제 후에도 보상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서울시에서 밝힌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7.93㎢에 3조4278억 원, 2028년부터 31.9㎢에 9조53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유지의 80% 이상은 우선 실효만 막아놓고 보상은 8년 후에나 들어간다.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지자체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을 서둘러 공원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日 수출규제가 키운 韓 ‘소부장 경쟁력’

규제 1년 국산화 성공·수입선 다변화
경상적자 5년 만에 최저 ‘전화위복’

‘전화위복(轉禍爲福)’. 일본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1년을 함축한 단어다. ▶관련기사 4면

지나해 7월 4일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당시 일부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한국에 특이 됐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

서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고 일부 품목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일본산을 역전하는 성과도 냈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액은 403만3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3만6000달러)보다 85.8% 급감했다. 수입 비중 역시 43.9%에서 올해 12.3%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수출규제 이후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도리어 역풍을 맞았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247억 달러에서 지난해 188억 2000만 달러로 줄었다. 2014년 164억 2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NO) 재팬’을 촉발했다. 올해 4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1년 전보다 87.8% 급감했으며 골프채(-48.8%), 완구(-47.6%) 등 주요 품목도 크게 줄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동행세일 첫 주말 ‘북적북적’

전 국민 소비 붐업 축제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 시작해 7월 12일까지 열린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동네 슈퍼, 전통시장, 백화점·대형마트, 가전·자동차 등 유통·제조업체가 참여해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를 벌인다. 주말인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동행세일 첫 주말 ‘북적북적’

청년 4명 중 1명 백수
이유있는 ‘인국공 분노’
취업자 6만명 ↓ ... 靑 청원 26만명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 색직원 직접고용을 놓고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에는 28일 현재까지 25만8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23일 처음 청원글이 올라온 지 다섯 달이 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번 인국공 사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이고 △청원경찰 직렬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사무 직렬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팩트’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청년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난과 박탈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감능력 결여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취업자는 6만 명 넘게 감소했다. 확장실업률은 26.3%에 달했다. 경제활동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란 뜻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SQI 14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 선정

모든 은행 계좌 수수료 없이

i-ONE뱅크로

속속!

송금수수료 완전 면제 0원

개인인터넷뱅킹, i-ONE뱅크(개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개인고객 누구나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2020년 12월 31일 까지, 타행 자동이체는 제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은행법상인 실적평가 2020-2018년(2020.05.04 게시기준) : 2021.04.29 - 경영 실용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K&G증권(☎1566-256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 실적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에 관련하여 이자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의 은행거래규칙에 준하여 요구하거나 금융보안정보위원회 등 통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연금 ☎1332, BK기업은행 : ☎909-900-1119) - BK기업은행은 금융·정보를 믿지 않습니다. 송금명령 위반 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요 사고에 즉시 처리합니다. (☎29-4991, e-mail : ikb@ibk.co.kr)

무너진 세계 감염병 컨트롤타워... 불붙은 2차 대유행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12분(그리니치 표준시 27일 오후 9시 12분) 기준 글로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1만3690명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중국은 179일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확진자 수가 258만 7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브라질(128만4214명) △러시아(62만7646명) △인도(52만9577명) △영국(31만250명) △스페인(29만5549명) △페루(27만2364명) △칠레(26만7766명) △이탈리아(24만136명) △이란(22만180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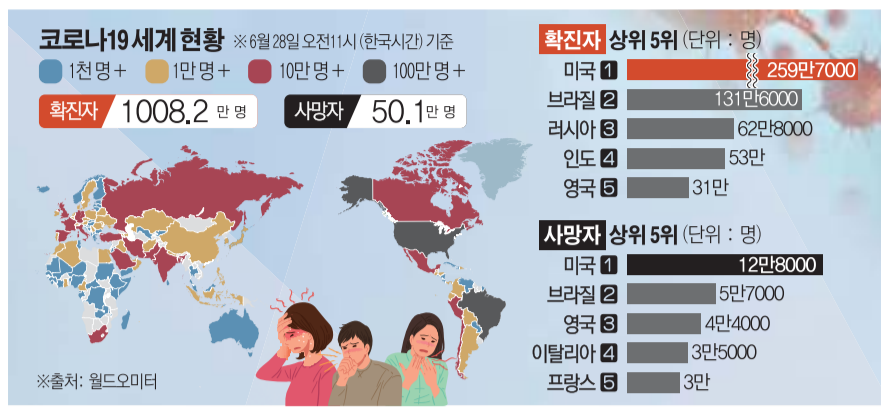
현재 수많은 국가가 감염병 통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최대 확진자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쓴 미국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남서부

봉쇄 완화→재확산→봉쇄 '악순환'
미국·브라질 등 신규 확진 급증 해외 유입 무증상자 차단도 불가

빛더미 앞은 세계 각국
내년 G20 공공부채 13.1兆 달러 GDP 대비 101% 사상 최대 전망

서민 생활고 심화
봉쇄령에 개도국 중심 경제난 가중 재정 한계 일부 국가 시위로 몸살

지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부터 27일까지 다섯째 4만 명 안팎을 이어가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남동부·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었던 코로나19 피해는 최근 들어 중서부·남부에도 번지면서 급격히 확산하



고 있다. 게다가 현재 여러 나라는 엄격한 봉쇄를 통해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했지만, 봉쇄 조치를 완화하자 이내 감염이 재확산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 조치를 다시 꺼내 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 → 봉쇄 강화 → 감염 억제 → 봉쇄 완화 → 감염 재확산 → 다시 봉쇄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한 국가 안에서 감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무증상 감염자'를 검역 단계에서 100%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보건 위기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에 각국 정부는 앞다퉀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끝에 성과를 보기도 했다. 기타고 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 부양과 대규모 양적 완화가 대규모 파산사태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불가피한 조치들은 세계 각국을 빛더미에 앉혔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톰 오릭과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달 보고서를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공공부채가 내년 말까지 13조100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발병 후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 비용이 급증한 탓이다. IMF도 세계의 공공부채가 2020~2021년에 GDP의 101%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년 전 대비 1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별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 붕괴, 생활고 심화 등에 대한 우려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해 병상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거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시민들의 굶주림은 심화하는 반면, 몇몇 국가는 이미 긴급 지원에 나설 정부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 변효선 기자 hsbun@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 종교시설發 감염 급증

서울 왕성교회 등 총 18명 신규 확진...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도 7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데 더해,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도 증가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2명 증가한 1만27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0명이다. 21일(40명) 이후 일주일 만에 최대치다.

특히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27명으로 8명,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 17명으로 7명 늘었다.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를 본 교인은 717명으로 파악됐다.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631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71명(11.3%)이다. 감염원이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71명의 '숨은 확진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코로나19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이후 네 번째 주말(6월 20~21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13~14일)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방



왕성교회 신종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중 한 명이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로 밝혀진 가운데 28일 해당 학교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체온을 재고 있다. 뉴스1

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24일)과 비교해도 당시의 99%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단계임에

도 다른 방역 조치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방역 조치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단계만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예금보험공사

당신의

희망이 담긴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개발 묶였지만 해제면 땅값 두 배” 투기꾼까지 ‘알박기’

도시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근린공원 둘레엔 현수막이 즐지어 달려 있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할 수 없다면 빨리 해제하라’, ‘수십 년간 묶어 놓은 재산권 돌려주소’, ‘공원 해제하라’와 같은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원 부지에 무단 침입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현수막을 달아놓은 건 이 공원 부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서울시와 강남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최근 토지주들에게 도로와 연결한 일부 부지만 우선 수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구역으로 묶어 두겠다고 통보했다. 최재혁 말죽거리공원 보상대책위원장은 “이대로면 안쪽 땅은 고립돼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세금만 내게 생겼다”며 “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긴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가족은 20년 전 양재동에 땅을 마련했으나 공원 부지로 묶인 탓에 아직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73.7%를 가진 다른 민간 토지주 사정도 비슷하다.

도시공원에 관한 갈등 대부분은 이처럼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공원을 만들 때 발생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전을 결정한 미집행 공원 부지 67.5km² 가운데 31.9km² (46.3%)가 사유지다. 18개 구역에선 사유지 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사유지의 토지 가치 총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올라가지만 시는 예산을 이유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보상이 미뤄지면서 토지 권리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18개 미집행 구역 70%가 ‘사유지’ 토지주 “재산권 침해” 소송 움직임 매년 공시가 오르는데 보상에 난색 기획부동산 가세… 권리관계 꼬여 전문가 “빠른 보상·재원확보 필수”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다음엔 기획부동산 회사까지 가세했다. A사는 올해 초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부지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임야 8371m²의 지분을 나눠 팔았다. 현재 이 땅은 A사를 빼면 62명이 평균 135m²씩 갖고 있다. A사는 이 땅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면 가치가 배로 될 것이라 홍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땅을 공원구역으로 지정, 보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만 밭이 묶인 셈이다. 노원구 월계동과 동작구 사당동에서도 기획부동산 업체, 지역주택조합 등의 개입으로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 넘는 필지가 생겼다. 각 지자체에선 토지주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워 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시공원 존치 문제는 법정 다음으로도 번질 기세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환경선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준비 중이다. 기한 없는 개발 제한으로 일몰제를 무력화하는 공원구역 제도는 일몰제 도입 근거가 된 현재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각 공원구역 소유주 수십 명도 각각 구역 지정 고시에 맞춰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세다. 일부 로펌(법률회사)에선 일몰제 논란을 대목으로 여기고 수임 영업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도 소송전을 예상해 대응팀을 꾸렸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 보상과 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 초입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자체에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상이 늦어진 탓에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토지주에 대한 재산세·소득세 감면,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씨

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교통·에너지 분야에서 일종의 녹지세를 거둬 공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데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며 “무작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보상 예산이 마련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민간공원 특례 제도, 토지 은행제(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차원에서 매입·비축하는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도 “남의 나라 일처럼 팔짱 끼고 지켜볼 게 아니라 토지 매입 비용을 받은 분담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원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 지지부진

공원 부지 30% 택지개발 ‘민간 특례’ 복잡한 지자체 조건에 기업들 ‘손사래’

‘의정부 롯데캐슬’ 성공사례 꼽혀 77곳서 추진…개발 포기도 속출

공원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공익성과 사업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 비(非)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사이에서 공원 부지 실효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77개 공원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기업으로서도 개발 가능한 도심 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이익이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롯데캐슬 골드파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이자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16년 3억 원 중반대에 분양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m²형은 최근 7억 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이 같은 몸값 상승엔

‘숲세권’이 한몫했다. 34만3000m² 규모의 대형 공원(직동근린공원)이 아파트를 감싸고 있어서다. 직동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해 시민 쉼터로 거듭났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좌초되는 곳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 대구 달서구 갈산공원, 전북 익산시 팔봉공원 2지구, 경북 안동시 옥현공원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했다. 개발업체에선 까다로운 현금 예치 조건, 지자체·공공기관의 지나친 간섭, 과소(過少)한 비공원 시설 조성 비율 등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개발 용지와 사업 연계 △예치금 제도 조정 △비공원시설 부지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 단체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을 보면 접근성이 편한 곳은 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시민 접근이 어려운 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의 개발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원을 지키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종화 기자 pbell@

우체국 예금

LIVE 7,569

- 월금은 오르고, 적금은 모르고... 10:23
- 여행루트는 짚고, 자금계획은... 10:25
- 신혼에 적당한 실속 금융 없나요? 10:28
- 자산은 안전이 최고인데... 10:30
- 적금부터 자산관리까지 우체국금융에 맡기세요! 10:35

0:33 22:22 HD

나를 알아주는 착한금융

소중한 자산, 잘 지켜주고 불려주고~
금융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당신 결연 늘 우체국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금융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반도체 핵심 '3품목' 국산화... 소재산업 내실 다졌다

SK머티리얼즈,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내년 준공
SKC, 블랭크마스크 연말 양산... 中 日 수출규제 속속 결실
불화수소 올 1~5월 日 수입액 지난해보다 86% 급감 성과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다
가오는 가운데 소재 국산화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산 소재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
스플레이 업계는 공정상 꼭 필요한 소재에
대해 일본이 기습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며
생산 차질을 우려했으나, 소재 업체들이
발빠르게 기술 국산화에 나서며 최악의 상
황을 면한 것은 물론, 향후에도 안정적으
로 소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
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28일 SK머티리얼즈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15일 열린 이
사회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내년까지 생산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SK머티
리얼즈가 개발에 돌입한 하드마스크(SOC
)와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ArF PR)
가 2022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의 노출에 반응해 화
학적 성질이 바뀌는 감광액으로 반도체 웨
이퍼 위에 정밀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소재다. 반도
체 고집적화에 따라 극미세한 패턴 구현이
요구되고 3D 낸드의 적층 경쟁이 심화되
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2월 금호석유화



학의 전자소재사업을 인수하면서 포토레
지스트 시장에 진출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미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HF) 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하고 2023년까지 국산화
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다른 SK그룹사인 SKC 역시 일본에
서 들여오던 '최고급(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

말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SKC는 '블랭크 마스크 인스펙션
시스템(Blank Mask Inspection System)
'이라는 장비 구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블랭크 마스크 제작 과정에서 결
함을 찾아내는 기기다. SKC는 지난해 4월
약 43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천안에 최고급
블랭크 마스크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12
월부터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본격
양산을 하기에 앞서 품질 관리를 강화해
수율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SKC 관계자는 "블랭크 마스크는 현재
고객사 평가 등 협의 단계"라며 "연말에 본
격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블
랭크 마스크란 반도체 웨이퍼에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때 쓰이는 핵심소재다. 지금
까지 일본의 글로벌 업체 2곳이 전체 공급
량의 95%를 차지해왔다. 특히 최고급 시
장은 그 비중이 99%에 달해,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블랭크 마스크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솔브레인, 램텍놀로지, 동진세미켄 등
의 중소기업도 소재 국산화에 힘을 보탤다.

이 같은 소재 국산화 노력에 올해 들어
일본에 대한 소재 의존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양산에 돌입한 불화
수소는 올해 1~5월 일본 수입액이 전년 동
기보다 85.8% 급감한 403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소재들은 아직까지 수입액
이 높으나, 국내 소재 업체들이 본격적으
로 연구개발에 착수한 만큼 곧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코로나 2차 유행 불안”...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최악’

상의 BSI 조사... 수출중 기준치 이하, 금융위기 수준 하락

3분기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나빠졌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수출과 내수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제조업
체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직전 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55
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였던 2009년 1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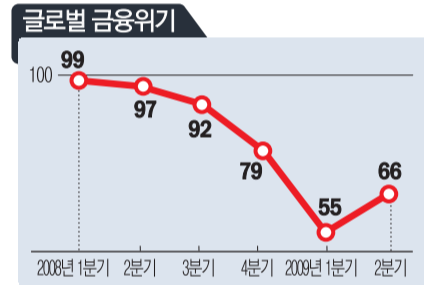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이
번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

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이
면 그 반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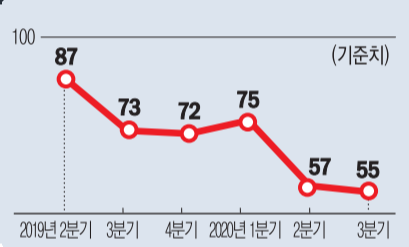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전망
모두 하락했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
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
한 62, 내수부문은 3포인트 하락한 53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매출 등락폭에 대한 예상은 평균 -17.5%
로 집계됐다.

대부분 업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국·유럽 등 수출시장에서 고
전 중인 '조선·부품(41)'과 '자동차·부품
(45)', 중국의 저가 수출이 예상되는 '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최근 동향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강(45)',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기계
(47)' 부문은 50에도 못 미쳤다. '의료정
밀(88)', ' 제약(79)' 부문은 K-방역 등
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식음료(69)', 'IT·가전(66)',
'정유·석화(66)' 부문은 50을 넘어섰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국의 모든 지역
이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지난 분기 가장
부진했던 제주(43→77)는 여름휴가철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에
서 가장 양호한 지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

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금융·세제 지
원'(52.4%), '내수·소비 활성화'(46.8%),
'고용유지·안정 지원'(43.5%), '투자 활
성화'(25.1%), '수출·해외 마케팅 지원'
(14.4%) 순으로 답했다.

제조업체 과반수는 포스트 코로나 대
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준비 정도'에 대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
하느라 대응여력이 없다'(53.9%)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대응책 마련 중'
(37.4%)이거나 '이미 마련해 추진 중'
(8.7%)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코
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은 자금 압박, 고용
유지, 미래 수익원 부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남남**
www.nanam.net nanam



與서도 터져나온 추미애 비판... 조응천 “언행 부적절”

추 “지시 잘라먹어” 윤석열 비판
조 “추 장관 언행 말문 잃을 정도
대통령에게도 부담될 수 있어
檢 개혁 위한 겸허한 자세 필요”



이러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정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언행을 자제했다”며 과거의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 윤 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 장관을 옹호하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

이 나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장관이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민주당 의원 대상 강연 등에서 윤 총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어났다. 추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 혁신 포럼 강연에서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7일 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문제는 겸언유착”이라고 맞받았다. 정일환 기자 whan@

이재명 “대선후보 선호도는 신기루”



로 향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단두대 운명’인 자신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 날아가느냐 마느냐가 걱정”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28일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 전에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도 “사라져 버릴지 모르 1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나, 질문에는 “과거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미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전 총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해 이르면 7월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지사는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 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일꾼인데, 자기 말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역할만 노리면 주권자인 주인이 일을 시키고 싶겠느냐”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제 도입도 재차 촉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원구성 담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정실에서 만나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1호 공수처장’ 이광범·이용구 물망

통합당 반대하면 임명 불가능... 협치 가능 제3 인물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24일 요청하면서 ‘1호’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는 자리다.



맞했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제3의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왼쪽)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와 이용구(23기·오른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선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으며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정일환 기자 whan@

주택과 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주도권을 위해 HUG가 함께합니다

고민은 들어주고 걱정은 덜어주고!

당신의 주도권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날까 걱정 안 해도 돼서 안심이에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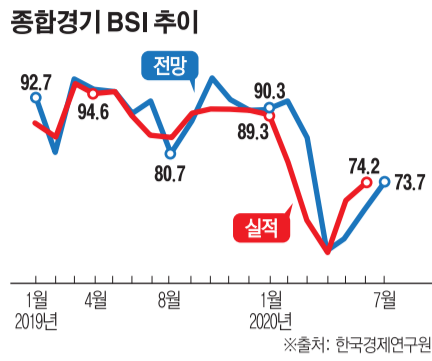
“낡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니까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도시재생금융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경연 “2분기 기업 고용, 40년 만에 최저”

600대 기업 BSI 지수 조사
경영 악화로 정기 공채 폐지
재고 전망 11년 만에 최고
“코로나 재확산에 더블딥 우려”



지난 2분기 고용 실적이 40여 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고전망지수는 1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조사에서 7월 전망치가 73.7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68.9)보다 4.8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도는 상황이다. 6월 실적치도 74.2로 전월보다 소폭(3.6P) 올랐으나 동월 기준 2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62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머물며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7월 전망치 부문별로는 내수(74.5), 수출(79.2), 투자(78.4), 자금(87.6), 재고(107.1), 고용(84.5), 채산성(80.5)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재고의 경우 100 이상일 때 부정적 답변(재고과잉)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4.8)은 전월 대비 상승(12.7P)했지만,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72.4) 체감경기는 전월 대비 악화(-6.4P)했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장기화에 따른 생산 활동 부진 여파로 전기·가스 판매량과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 내수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경연 측은 종합경기 전망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재고 전망은 전월보다 악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재고 전망(112.9)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15.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개선됐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로 국내외 상품 수요 회복세가 둔화해 기업들이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한경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6월 실적치는 74.2를 기록하며 62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부문별로는 내수(76.8), 수출(78.7), 투자(77.6), 자금(86.6), 재고(107.1), 고용(83.7), 채산성(82.6)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2분기(4-6월) 고용 실적 BSI는 평균 80.6으로 전년 2분기(평균 97.6)보다 무려 17P 줄었다. 기업경기동향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 신규 채용은 줄고, 기존의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망치가 다소 개선됐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하고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더블딥(Double Dip·이중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장기화하는 실물 충격과 전례 없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점점 못찾는 노사정 대타협

勞 ‘해고금지·고용유지’ 요구
使 “임금인상 양보해야 가능”
입장차 커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목표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은 30일 3차 본회의 개최에 앞서 접점을 모색해 큰 틀의 합의를 만들 예정이지만 비관론만 감돌고 있다. 고용 분담 방안 등을 두고 노사정 주체들 간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중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주요 주체들이 참여한다.

앞서 노사정 주체들은 이달 16일부터 부대표급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여러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부대표급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유급휴업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노동계의 실망감이 큰 상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사회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입장이다.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못 내면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코트라,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 권영오(오른쪽) 코트라 사장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업체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코트라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판로 개척과 부품 및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애로를 듣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남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10개사가 간담회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코트라

“취업 안돼 박탈감 심한데”... 정책이 만든 정규직 반감

취업난이 부른 ‘인국공 사태’
청년 대부분 ‘취업 못한 구직자’
정부·여당 팩트 설득에 거부감

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는 2년을 훌쩍 넘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이견이 없었고, 인국공 보안직원 직접고용도 2년 전 합의됐다”며 “고용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이어져 집행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무엇이 청년을 분노하게 했나-인국공에 앞서선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상당수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직원을 직접고용하거나, 이들을 직접고용할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은 있었으나, 이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유독 인국공 사태에서 논란이 거센 배경은 고용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29세는 인구가 6만6000명 늘었음에도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 고용률(70.6%)을 반영하면 취업자가 4만7000명 늘어야 할 상황이다. 줄어든 취업자의 대부분은 실직자가 아닌 ‘취업에 실패

한 구직자’다. 코로나19로 신규채용이 얼어붙어서 생긴 일이다. 실업자에 비자발적 시간제,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더한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6.3%로 전년 동월보다 2.1%포인트(P) 올랐다. 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란 의미다.

이병훈 교수는 “밀레니얼세대 특징이 개인주의 성향을 띠면서 권리의식이 크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정책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 대해 반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청년 일자리가 귀해졌다. 인국공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며 “본인들은 벽에 부딪혔는데, 기존 간접고용이 직접고용된다고 하니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대응도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 교수는 “감정이 상했는데, 거기에 팩트를 내세우고 논리를 내세우면 받아들이겠냐”며 “이 문제는 정리보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농산물 검역 완화... 대만 수출 쉬워진다

내달 컨테이너 번호 기재 면제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검역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대만으로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은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돼 왔다.

최근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대만으로 주요 수출 농산물은 배추와 양배추 등으로, 2017년 3억7679만 달러를 수출한 뒤 2018년 3억6950만 달러, 2019년 3억6686만 달러로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 농산물 수입은 2017년 2억4539만 달러에서 2019년 2억9609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검역 과정에서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 정부는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고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의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경차·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다자녀가구는 할인 도입

내년부터 경차와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할인이 연장되고 다자녀가구 할인 등이 도입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차 할인제

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1996년 도입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에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건강한 Life is Good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건강한 홈 Life를 위해
LG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심심한데 주식이나 할까”... 도박꾼 놀이터 된 증시

중앙은행 전례없는 지원에 베팅 스포츠 도박사들, 증시로 유입 증시 호재·악재 상관 없이 등락 닷컴버블과 비슷... 투자 주의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경제붕괴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호재든 악재든 상관없이 예상을 깨는 증시 흐름을 두고 '도박꾼' 같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일회일비하면서 5거래일 중 3거래일이 올랐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비판적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증시 랠리에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현지시간) 경종을 울렸다. 투자자들이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지원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주가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금융시장의 낙관론과 실물 경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전망을 해칠 수 있는 자산 가격의 또 다른 하락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올 1월부터 6조 달러(약 7224조 원) 규모의 자산을 사들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매입한 자산 규모의 2배가 넘는다. 덕분에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85%를 회복했다. 하지만 IMF는 “지금까지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트리거’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도박사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점도 비정상적인 흐름 원인으로 꼽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는 스포츠에 베팅하던 사람들이 최근 증시로 몰리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뒀다고 한다. 경제 붕괴로 실업률이 급증하

는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규 매수세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그들이 스포츠에 베팅하던 이들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는 공격적인 도박꾼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증시 재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직관에 따라 스톡 넘치는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산해서 가치가 거의 없는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NYT는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면서 지루해진 도박꾼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게임 산업 리서치회사에일러스엔크레지크게이밍에 따르면 도박꾼들은 작년에 합법적으로 130억 달러 이상을 스포츠 게임에 쏟아부었고, 불법 도박은 그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주요 스포츠 리그가 폐쇄되면서 이런 돈들은 갈 곳을 잃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3세 남성은 “초기에 주식에 1000달러를 넣었다. 항공과 카지노 관련주를 샀는데 1주일 새 60%가 뛰었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도 주식을 하라. 지금 주식을 거저 먹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포츠 리그가 본격 개막한 이후 도박꾼들이 빠져나가면 증시는 거품 빠진 닷컴버블 붕괴 때와 같아질 수 있다며 이상 랠리에 과도하게 편승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2차 감염 나물라라... ‘노 마스크’ 피서

27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솔트강가가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최고치를 찍으며 누적 환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 힐라카운티/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트럼프 막말’ 방치했다 혼쭐

광고주들 보이콧에 폐북 주가 8.3% 폭락... “폭력 선동 게시물 삭제” 뒤늦게 진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인종차별 발언을 방관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반대시위 관련 게시물을 그냥 두기로 하자 주요 기업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사 주가는 박살이 났고, 저커버그 자신의 재산도 하루 만에 8조 원 넘게 잃는 쓴맛을 봐야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주가는 전날 무려 8.3%나 폭락했다. 이는 3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페이스북의 시가 총액은 560억 달러(약 67조4240억 원) 증발했고,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저커버그의 재산 가치 역시 72억 달러가 날아갔다. 이 여파로 인해 저커버그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한 계단 내려와 4위로 밀려났다.

이는 페이스북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내버려 두기로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 보이콧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악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는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각각 올렸는데, 트위터는 ‘폭력 미화’를 이유로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그대로 뒀다. 즉각적인 위협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의 소극적 대응은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샀다. 급기야 페이스북을 겨냥해 ‘이익을 위한 증오를 멈춰라(#StopHateForProfit)’ 운동까지 벌어졌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광고주들에게 7월 한 달간 페이스북에 광고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세계 최대 광고주 중 하나인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를 포함해 코카콜라, 의류업체 노스페이스-리바이스-파타고니아, 혼다자동차,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 개발사 모질라, 통신회사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 등 90여 개 이상의 회사가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저커버그 CEO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치 지도자의 게시물이라도 폭력을 선동하



거나 투표 참여를 방해한다면 삭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저커버그는 26일 “나는 페이스북을 주요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 공간으로 남겨 할 것을 약속한다”며 “하지만 또한 나는 증오, 폭력 선동, 투표 억압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그게 어디에서 왔든 그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정치인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태를 진정시킬지는 미지수다. 이날도 펩시코가 7-8월 페이스북 광고를 중단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리면서 코카콜라에 이어 음료업계 최강 라이벌인 두 업체가 나란히 페이스북 광고 거부에 동참하게 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스벅 잡겠다고 중 루이싱커피 회계 스캔들로 나스닥서 퇴출

청문회 자진철회하며 오늘 상폐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렸던 중국 루이싱커피가 결국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 체인인 미국 스타벅스를 넘어서겠다고 중국 토종 커피 브랜드의 꿈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만 남긴 채 신기루로 끝이 났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이날 나스닥을 상대로 한 상장 폐지 관련 청문회 요구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에 따라 루이싱커피의 주가는 29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지 폐지된다. 앞서 이 회사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아 재고를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신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중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문제로 중국 기업의 정보공개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상장을 제한하는 움직임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루이싱커피는 2017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 2년 만인 2019년 5년 화려하게 나스

닥에 상장했다. 국내외에서 대형 투자를 유치한 이 회사는 공격적으로 뽐집을 불려나갔고, 중국 내 매장 수 또한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했다. 한때는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중국판 스타벅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스타트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지난해 2~4분기 루이싱커피의 매출이 최소 22억 위안(약 3738억 원) 부풀려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나스닥에서 루이싱커피의 주가는 75.57% 폭락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 당국은 각각 루이싱커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루이싱커피는 지난달 회계 부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던 첸즈야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했다. 아울러 이날은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루징야오에게도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코로나 장기화에 신흥국 ‘달러 가뭄’

수출·관광 타격... 외환보유액 20년 만에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신흥국의 달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수출과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은 데다 자국 통화 약세로 외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이집트 정부는 최근 주요 유적지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입장료도 낮추기로 했다. 7월 1일부터는 공항 폐쇄를 해제해 관광객을 휴양지 등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 차지하는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집트 정부의 교육지책이다. 관광은 이집트 최대의 외화벌이 수단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입이 급감, 외

환보유액은 3월 이후 20%나 줄었다. 닛케이에는 경상수지가 올해 신흥국에서 특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국을 제외한 141개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2%로 2001년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신흥국에서는 국가 신용도의 지표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32개 신흥국의 외환보유액(금 제외)은 올해 4월 말까지 500억 달러(약 60조 원) 감소한 2조8000억 달러가 됐다. 외환보유액은 신흥국의 성장과 함께 연 10%씩 증가했지만, 올해는 연율 환산 1500억 달러 감소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신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신흥국을 드나드는 자금은 과거보다 늘어나 투자자들이 리



스크 회피에 나서면 통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공급했지만, 대상은 브라질, 멕시코에 그쳤다.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터기는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협상이 불발됐고, 이집트는 IMF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깍' 해야 음식배달... 언택트에 허덕이는 '깍' 노동자들



기रो에 선 '깍 이코노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고용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깍 이코노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깍 이코노미 백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와 지금보다 훨씬 다각화한 일자리 수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깍 이코노미 시장규모가 2018년의 약 2040억 달러(약 243조 원)에서 2023년 45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팽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깍 이코노미에 대한 이런 낙관적 전망을 비판으로 바꿔놨다.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자택대기 명령과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깍 이코노미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파트타임 전문 구직사이트 앱잡스(AppJobs)가 지난 4월 전 세계 1400명 깍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수요 급감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답했으며 89%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소득을 저축하고 있다"는 답변이 23%에 그치는 등 깍 이코노미 근로자들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깍 이코노미는 직업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이나 건강보험 또는 병가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 특히 이런 혜택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중보건 기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고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깍 이코노미 근로자들의 수입원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이 인류를 습격했다. 전 세계 수많은 감염자와 사상자를 낸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경제 활동과 개인의 일상은 물론,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인류는 당분간 정체 모를 전염병과 공존을 꾀하면서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4차산업 총아 '깍 이코노미'
"시장 규모, 2018년 243兆서 2023년 547兆 2배로 클 것"

상호교류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를 포함한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등 깍 이코노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업들도 손을 놓고 있지 않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14일간의 임금을 지급했다. 우버는 운전기사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나 장갑,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 구비를 위해 5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그랩허브 등 음식배달업체는 '비접촉 배달' 서비스를 도입,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깍 이코노미 근로자들에게 대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팬데믹 격리·봉쇄... 좌초위기
관련 근로자 68% "현재 소득 0" 열흘짜리 임시직에 10만 명 몰려

에는 역부족이다. 유럽의 코로나19 중심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57세 음식배달 기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두렵지만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재정적 불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 일은 유일한 수입원이며 나는 월말에 임대료와 각종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먹는 사람, 식당 밖에서 주문을 기다리는 다른 기사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깍 이코노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음식배달 등 각종 봉쇄 조치 혜택을 받는 업종은 공격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플랫폼 전환 가속
전자상거래·음식배달 등 성장세 환경·수요 따른 노동시장 격변

미국 온라인 식품배달업체 인스타타트는 3월 한 달 새 30만 명을 고용했으며 4월 말 25만 명을 추가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깍 이코노미에 의존했던 근로자들은 더 많은 사람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돼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프리랜서



깍 이코노미 (Gig Economy)

기업이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뜻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 인기가 치솟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들과 단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깍'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코로나가 바꾼 '산업 지형도'

봉쇄 뚫은 건 '랜선' 뿐... '일자리 리부트' 가속

온라인 상거래 뜨고, 대면 산업은 사양길
자동화·로봇 도입... 사회안전망 대책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만 퍼뜨린 게 아니다. 봉쇄령으로 경제가 멈춰서면서 '실업 쓰나미'를 몰고 왔다. 최근 12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수만 약 4420만 명에 달한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실제 실업률도 20.5%로 7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각국이 경제 재개에 나선 가운데 이들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더 쏠린다.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SHRM)에 따르면 경제 재개 이후에도 약 45%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복귀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 지형 재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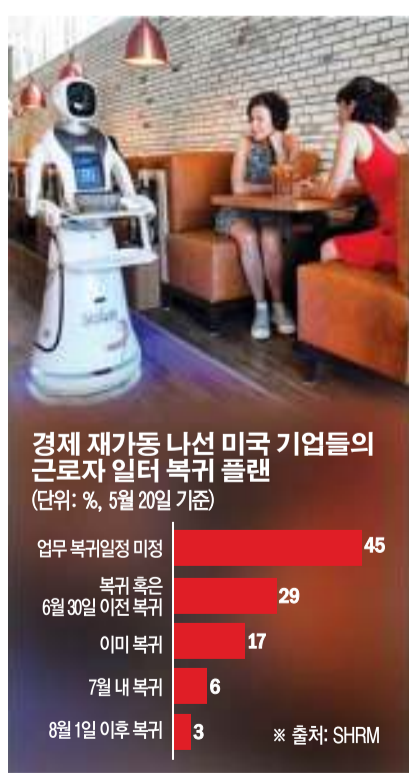
이는 코로나 국면에서 산업별로 극명한 희비를 드러냈다. 온라인·디지털 분

야가 뜨고, 전통 제조업과 공유 오피스 같은 대면 서비스업은 쪼들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택트(비대면)'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바꿔 놓은 것이다.

재택근무 및 자택대피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유통과 전자상거래 분야는 호황을 맞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 시대 최대 승자는 온라인 유통업체"라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이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61%에 달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코로나19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유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위치한 한 중국 음식점에서 로봇이 음식을 손님에게 배달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로이터연하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단연 돋보였다. 늘어나는 온라인 배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마존은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했다.

상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 분야 활성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자리 재편도 가속화할 조짐이다. 안나 토마스 노동미래연구센터 책임자는 "좋은 질과 충분한 보장을 동반하는 일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온라인 일자리가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인력의 재배치는 자동화 추세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라 평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온 노동시장 재편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하는 셈이다.

실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로봇이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

타하면서 로봇 자동화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산업용 로봇업체인 히로시 오가사와라 야스카와전기 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작업 현장의 변화는 자동화 추세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 진단을 내렸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일자리 재편이 꿈틀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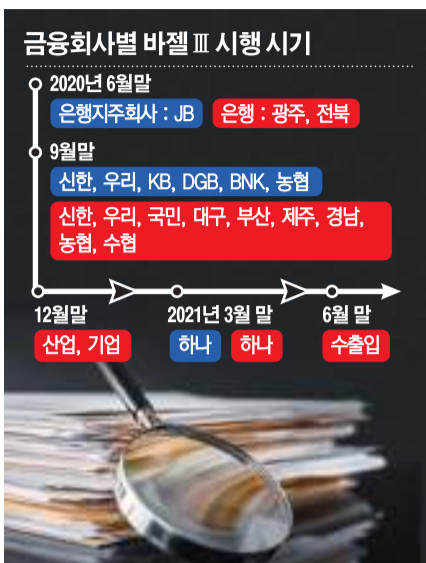
이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에 걸맞은 교육과 훈련이 준비돼야 한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은 만큼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리부트(reboot·재시동)'의 시대로 규정했다. 고용시장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틀에 맞는 제도와 형식을 서둘러 갖춰야만 뉴노멀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융권 '바젤Ⅲ' 이달 말 시행... 中企 대출 여력 커진다

中企 대출 위험가중치 85%로 하향
지주사 8곳·은행 15곳 순차 도입
자본부담 줄어 BIS비율 상승 효과
지주사 1.11%P·은행 1.91%P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 모두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시행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신청해 승인받은 15개 은행과 8개 지주사가 조기 적용 대상이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자기 자본비율이 은행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젤Ⅲ 최종안은 바젤위원회가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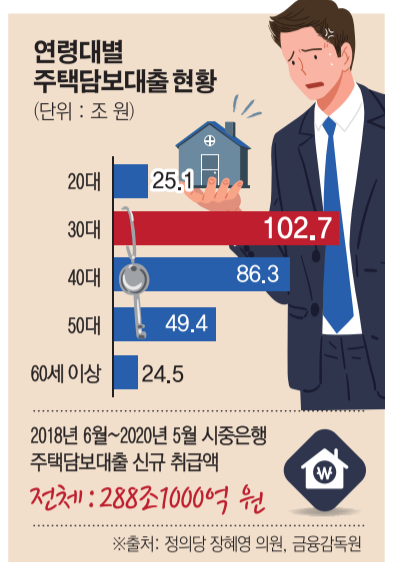
올해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의 예정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

자산 격차 더 벌어질라 '불안감'에... 빛내서 집 사는 30대 급증

주담대 102.7兆... 전체 35%
대출 증가폭 1년새 15兆 늘어



청년층이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 빚을 내는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의 대출액이 102조 7000억 원으로 전체(288조1000억 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6조3000억 원, 50대 49조4000억 원, 20대 25조1000억 원, 60세 이상 24조5000억 원 순이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 30대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3조9000억 원을 빌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1년 대출금은 58조8000억 원에 달해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역시 청년층 비중이 컸다.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30대가 30조6000억 원으로 전체(71조2000억 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6조1000억 원, 20대 15조2000억 원 등이었다.

20대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늘었

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0대는 전세자금 대출을 5조 9000억 원 받았지만, 최근 1년 동안엔 9조 2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장 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20대는 집값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수십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남은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닌 청년 부채의 급증"이라며 "투기 세력이 아닌 청년들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동국제강, 철을 다시 만들다

철로 철을 만드는 Steel Recycling

철을 다시 살리는 기술은 환경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홍봉성 라이나생명보험 사장 'CEO 대상'

라이나생명보험은 홍봉성 사장이 취임 10년차를 맞아 한국마케팅학회로부터 '제 11회 대한민국 CEO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마케팅학회의 '대한민국 CEO대상'은 CEO의 시장지향형 마인드, 창조적 마케팅, 사회공헌과 지역친화적 경영, 경영 능력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난해는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수상했다.

한상만 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홍사장이 지난 10년간 라이나생명에서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마케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고, 라이나전성기재단을 통해 돈보이는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특히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홍 사장은 취임 첫해부터 차별화와 세분화를 강조했다. TM채널의 차별화를 통해 독보적인 TM사로 성장시켰다. 상품 역시 TM으로 판매하기 적절하도록 쉽고 간결하게 설계했으며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상



대한민국 CEO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한 홍봉성(왼쪽) 라이나생명보험 사장과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사진제공 라이나생명

품을 출시해 설계사 조직이 없는 약점을 극복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봉성 사장은 "라이나생명에서의 지난 10년을 인정 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10년 동안 믿고 지원해준 시그나그룹과 때론 어려운 과제도 잘 수행해준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NH농협銀, 급여 이체 직장인에 '선물 꾸러미'

NH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당행 입출금계좌로 급여를 처음 입금 받고(건당 50만 원 이상)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에서 응모한 고객 중에서 추첨하여 드롭기 커피머신, LG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위 이벤트 응

모 고객 중에서 추가로 NH오픈뱅킹에서 타행계좌 등록된 고객을 추가하여 클릭 마 사지기,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9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당행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리그램)하고 댓글을 남기는 고객 중에서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박은평 기자 pepe@



MOHAVE
THE MASTER

빛나지 않는 화려함 완전한 몰입 그리고 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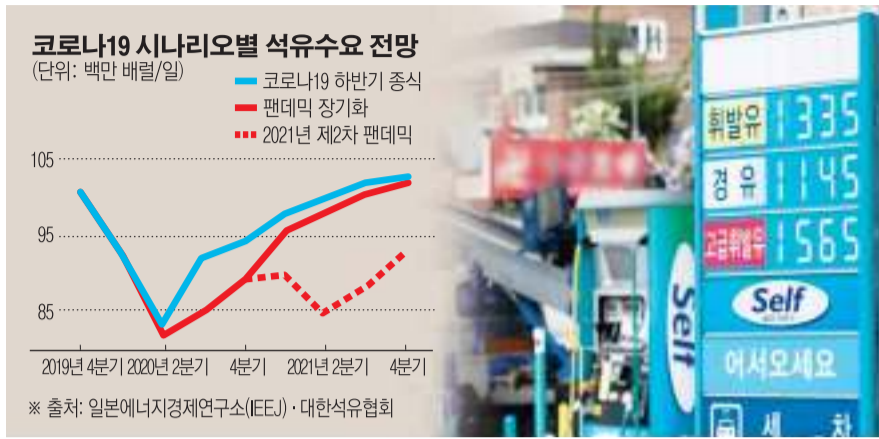
GRAVITY 탄생

| 그라비티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 20인치 블랙도장 휠 | 알칸타라 인테리어 | 1열 도어 무드램프 |



코로나로 석유사업 한계...“정유사 2년 내 체질 바뀌어야”

수송용 수요 회복에 최소 2년
맥킨지 “기후변화 압박 본격화
미래에너지 포트폴리오 늘려야”
SK이노, 배터리·친환경유 투자
GS칼텍스, 바이오연료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석유사업의 한계를 마주한 정유사들이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송용 수요의 급감을 한 차례 경험한 만큼, 탈(脫) 탄소와 추세가 가속화되는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선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는 코로나19로부터 석유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2년간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친환경에 기반하거나 정유업과 연계한 화학 사업 포트폴리오 추가 등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운송, 수송용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더 이상 미래를 이 수요에 기대면 안된다는 것을 빨리 깨우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2년

간은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석유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가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올 하반기 종식될 경우 석유 수요는 올해 일일 9070만 배럴(b/d)로 전년 대비 9.3%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4분기 이 수요는 하루 8910만 배럴까지 떨어지고 내년도 2차 팬

데믹이 올 경우 8900만 배럴로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수요 감소분의 대부분은 수송용 수요에서 비롯되고 있다. 휘발유·경유·항공유(등유)의 수요 감소는 전체 수요 감소분의 약 80%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감소는 휘발유→경유→항공유(등유) 순으로 회복되지만 기간은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 회복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다. 추가적인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며

히려 장기적인 위기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단기 위기 이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발달로 인한 휘발유 수요 약화, 기후변화·환경 이슈 부각으로 사업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 역시 지난 달 ‘코로나19 이후의 석유·가스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환경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며 “석유·가스 업계가 지금까지 겪어 온 대증의 부정적인 인식과 투자자·대출 압박은 미래에 비한다면 경미한 수준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정유사들이 △포트폴리오 재구성 △과감한 인수·합병(M&A) △디지털 전환(DT), 인공지능(AI) 등 운영모델 재평가를 통한 실적의 단계적 변화 및 비용 경쟁력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일부 기업, 자사 사업군을 미래 에너지 기술쪽으로 변모시키는 모멘텀으로 활용하며 미래 가치 창출에 최적화된 자본 형태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승자는 향후 장기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라고 내다봤다.

국내 정유사 역시 비(非) 정유부문을 강

화하는 골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외 전기, 수소 등도 충전하는 거점으로 주유소를 변경하고 사업에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성장동력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밸런스(Green Balance) 2030’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소재 사업과 저탄소 바이오 연료, 친환경 윤활유·아스팔트, 초경량 자동차 소재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또한 친환경 윤활유 등 미래에 맞춘 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자회사인 현대캐미칼을 통해 정유 부산물 기반 석유 화학공장을 신설하는 ‘HPC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GS칼텍스는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올레핀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상업화에도 한창이다. 에스오일(S-OIL) 또한 잔사유 고도화시설(RUC)과 다운스트림(ODC) 시설 등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전자가 수원KT위즈파크에 'LG LED 사이니지'를 활용해 설치한 330m 길이의 리본보드(띠전광판).

사진제공 LG전자

LG, 수원구장에 330m LED 사이니지 설치

국내 야구장 최장 LED 보드판

LG전자가 경기장 전용 LED 사이니지를 국내 최초로 야구장에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KT위즈파크’ 내 리본보드(띠전광판)를 ‘LG LED 사이니지’로 조성했다. 1루부터 3루까지 내야석 바로 위 외벽에 설치된 리

본보드는 크기가 높이 1m, 가로 330m에 달한다. 이는 국내 야구장에 설치된 LED 사이니지 중 가장 길다.

이번에 설치한 LG LED 사이니지는 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6000니트에 달해 외야 관중석에서도 각종 이벤트, 선수 소개, 응원 문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1초에 4000장의 화면을 구현하는 4000헤르츠의

고 주사율로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도 매끄럽게 보여준다. 또한, LG전자는 경기장 내 백스탑(본루 뒤쪽 공간)에도 ‘LG LED 사이니지’를 활용해 높이 약 1.5m, 가로 약 9m 크기의 광고물을 설치했다.

LG전자는 LED 사이니지 설계와 설치부터 제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모두 제공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간편식 즐기고 ‘홈트레이닝’

CJ대한통운 3·4월 택배 분석
곱창·떡볶이 밀키트 3~4배 ↑
러닝머신 배송 260% 늘어
차박 매트도 4배 이상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곱창, 막창, 떡볶이 등 외식전용 밀키트 제품 주문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28일 자사 택배 송장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3~4월 총 4억8000만 건에 해당하는 물품 데이터를 분석한 ‘일상생활 리포트 플러스(PLUS)’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3~4월 택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식, 방문포장, 전문점 배달로만 즐기던 음식들의 배송량이 증가했다. 곱창·막창 밀키트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으며, 토핑이 첨가된 요리 수준의 떡볶이 밀키트 제품은 282%나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방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문점 배달 음식의 가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택배로 대량구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커피머신 165%, 캡슐커피 79%, 드립커피 용품 57% 등 홈카페 관련 물량도 대폭 늘어났다. 운동

시설 잠정 폐쇄, 마스크 착용 후 운동 등 헬스장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서 각종 운동기구 택배 배송량도 크게 증가했다. 유산소 운동을 도와주는 러닝머신은 266% 폭증했으며, 계단 밟기 운동기구인 스텝퍼는 162% 증가했다. 아령 제품 140%, 홀라후프도 60% 늘었다.

이동수단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문화 확산으로 차박매트 배송량은 329% 급증했으며, 간단하게 여행 짐을 챙길 수 있는 보스톤백 물량은 158% 늘었다. 이와 함께 차량 내비게이션은 80%, 후방카메라 42%, 트렁크 정리함 53% 증가하는 등 자동차 관련 용품 물동량도 크게 늘어났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대신 1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킥보드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며, 3월 킥보드 물량은 고강도 거리두기 직전인 2월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대구와 경북의 경우, 출산·육아용품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7%나 뛰었고, 도서·음반 제품은 858% 늘어났다. 생활건강제품 686%, 화장품·미용상품 682%, 패션의류·잡화는 520% 등 일상생활 관련 제품군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에너지 1등급’ QLED TV 출시

9월까지 최대 60만원 할인

삼성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QLED TV를 28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QT67 시리즈로 6개 모델(43·50·55·65·75·85형)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기존 크리스털 UHD TV에 이어 QLED TV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색 재현력이 뛰어

난 QLED 디스플레이와 HDR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퀀텀 HDR을 적용해 고화질과 경제성을 두루 갖췄다.

QLED QT67 시리즈 신제품의 출고가는 제품 크기에 따라 99만~549만 원이다.

이번에 출시된 QLED TV는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옴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 품목으로 개인별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9월 말까



지 크기가 55형이 넘는 1등급 QLED 모델을 구매하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환급금 포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기아차, 쏘울EV·니로EV 3박4일 시승 행사

기아자동차가 더 많은 고객이 쏘울과 니로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7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말마다 총 24번에 걸쳐 진행되고, 매번 총 34대의 전기차(쏘울EV 7대·니로EV 27대)가 운영된다.

시승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시승 후 설문에 응답한 고객

에게는 △1만3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시승 종료 3개월 이내에 기아 전 기차 구매 시 10만 원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시승 희망 일정, 신청 사연, 차량 인수 거점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제주항공〉

CB 발행 무산에 오너 리스크까지...벼랑 끝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자녀 불법승계 의혹에 자금출처 논란 250억 체불임금 미해결...M&A 무산시 퇴출 우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오너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스타항공의 자본확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실패, 제주항공의 전환사채(CB) 발행 예정일 연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인수-합병(M&A)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의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2007년 10월 이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당시 이 의원이 이끌던 KIC그룹 계열사 새만금관광개발이 지분 49.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이후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형인 이경일 전 KIC그룹 회장에게 이스타항공 회장직과 지분을 넘겼으나, 이경일 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후 경영진 변동이 수시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6년부터 약 2년간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단돈 3000만원으로 이스타홀딩스가 탄생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이스타항공의 지분 68.0%를 약 100억 원에 사들여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출처,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지난 25일 "이스타홀딩스의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며, 사모펀드로부터 80억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스타홀딩스는 수년에 걸쳐 보유한 항공 지분을 매각해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원금과 이자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상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 제기 계속되고 있다. 수년 간 적자를 기록한 회사에 자금이 어떻게 유입될 수 있었는지, 사모펀드 투자자 실체는 있는지 등에 대해 비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출범 이후 한때 완전자본

잠식을 넘어 자본잠식률을 300%대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취약했으며,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출범 이후 6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다 2013년 간신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보유 지분은 올해 1분기 기준 39.6%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2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545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보유하게 될 지분 51.17%를 제외하곤 나머지 약 48%는 이 의원과 이스타홀딩스의 우호지분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의원이 여전히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5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체불 임금 해소 문제를 두고 제주항공과 끊임없이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인수대금 110억 원을 추가로 깎아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제주항공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제주항공은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해 이 자금을 이스타항공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마저도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스타항공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18년 12월 말부터 자본잠식률 50%에 육박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00%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건설기계 1~4월 수출 15% 줄었다

두산인프라·현대건설기계 코로나 여파 일부 공장 멈춰 2분기 실적 더 악화할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기계 완성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수출국인 북미,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는 만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의 실적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기업의 건설기계 완성차(굴착기, 지게차 등) 수출 대수는 2만4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월별 수출 대수는 5000대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4월 들어 서면서 4000대 선까지 떨어졌다.

건설기계 완성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굴착기의 1~4월 수출 대수는 9384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

건설기계 완성차 수출 대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프라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유럽, 북미는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진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업체들의 국내 공장에서도 생산되는 건설기계들은 대부분 북미, 유럽으로 수출된다.

수출 대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꺾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부활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2% 증가했다. 유럽에서도 독일 베를린, 포르투갈 리스본을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상황 악화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굴착기, 엔진 등을 생산하는 인천공장도 3일과 5일 문을 닫았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달 10일간 울산공장 가동을 멈췄다.

계속된 악재로 건설기계 업체들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정보제공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2분기 영업이익은 161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6%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기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감소한 202억 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 완성차 수출이 다시 활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주유권 증정 'SK오일로패스' 시즌2 내달 시행

SK에너지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SK오일로패스' 시즌 2를 내달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지난해 25~35세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했다면, 이번 시즌 2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과 이들을 구하는데 열정을 다한 코로나 영웅들에게 국민들이 에너지를 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K에너지는 이번 오일로패스를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코로나 영웅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이들을 응원하는 사회안전망(Safety Net)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마트가 함께 하기로 했

다. SK에너지는 SK오일로패스 시즌 2 신청자 중 5만명에게 이마트 할인권 1만원권을 지급하고, 이마트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SK주유권 5000원권(총 12만장)을 지급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SK오일로패스 시즌1에서는 25~35세 청년 세대 중 1000명을 추첨해 전국 SK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행사는 33만여 명이 응모하고 20만여 개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등록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네이버에서 20대 검색어 1위, 전체 검색어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기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기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中企와 함께 위기 극복”... 이통업계 ‘상생경영’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적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이통업계가 다른 업종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돌파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금융, 유통 등 타 사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에너지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인 ‘E-Optimizer(E-옵티마이저)’를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한다.

지난해 출시된 E-옵티마이저는 SK텔레콤이 수년간 쌓아온 에너지 사업 노하우

- SKT** 금융·유통사에 ‘에너지 절감’ 서비스 무료 제공
- KT** 자체 개발 양자암호통신 핵심기술 中企에 이전
- LG U+** 금융보안원·LG CNS와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한 전력 비용 최적화 서비스다. 중대형 빌딩이나 공장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15분 단위로 분석해 현재 고객의 적정 요금제, 전력 사용 패턴 분석, 개선 방안을 컨설팅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고객은 통합 대시보드에서 각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관리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고압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3년 동안 자체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이전한다. 이전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양자 키 분배(QKD) 시스템’이다.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은 데이터를 해킹과 감청이 어려운 상태로 암호화 하기 위해 양자로 만든 ‘키(암호 키)’를 통신망에 공급하는 양자

암호통신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이번에 계약한 중소기업들은 KT의 양자 키 분배 시스템으로 관련 장비를 제작하고 KT와 기술 테스트를 거쳐 각종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KT는 이번 기술 이전으로 KT의 기술과 중소기업의 장비 제작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내 한국 양자암호통신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금융보안원, LG CNS와 협력한다. 이들은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유통과 활용 활성화를 통한 빅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와 금융보안원, LG CNS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 및 활용 사례 발굴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또 데이터 결합, 분석, 컨설팅 등 데이터 활용, 통신·금융 데이터의 융합 시나리오 발굴 및 융합데이터상품 개발 협력, 금융데이터거래소(FinDX)를 통한 데이터 상품 유통과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나설 계획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제조, 유통,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동반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통산업과의 시너지를 연계해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atio@

‘주파수 재할당’ 비용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3조 원대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이라는 판단인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통신 3사는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됐지만 여전히 이전 단계의 낮은 주파수 대역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2G·3G 50MHz폭과 LGU+의 2G주파수(20MHz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LTE 270MHz 주파수도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5G주파수의 전국 광대역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기존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를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
(단위: MHz)

	SK Telecom	KT	LGU+	총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105	95	120	320
재할당 대역폭	95	95	120	310

재할당 비용 3조 원 ‘역대 최대’
이통업계 “유럽 등에 비해 과도”
과기부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주파수 이용이 끝나는 만큼 6개월 이전인 연말까지 통신사와 주파수 할당 대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까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조치에 통신사들은 우려 섞인 반응이다. 현재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대가 산정 방식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통신 3사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 업계는 약 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또,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매출 대비 약 7.9% 수준으로, 프랑스 2.65%, 미국 2.26%, 일본 0.73%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외국 사례를 들어 ‘재할당 비용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은 통계 작성에 오류가 있고, 되레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시정환경이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가 ‘전자칠판’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하정보통신

인터뷰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

“0.5초 내에 체온 측정 가능한 ‘스마트패스’ 을 20만대 팔 것”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비해 3분의 1값에 정확한 측정
내년엔 ‘AI 전자칠판’ 출시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처럼 5월 출시한 스마트패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올해 매출액의 80%를 차지할 것 같다. 20만 대는 무난히 팔 것으로 본다”
국내 전자칠판 제조 1위 업체 ‘아하정보통신’이 0.5초 내에 체온을 재는 스마트패스 기기 제조 시장에 뛰어 들었다. 건설한 강소기업이 ‘언택트’ 유행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매출액도 급증했다.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는 올해 매출액을 기존 4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아하정보통신의 매출액은 342억 원, 2018년은 322억 원을 기록했다.

아하정보통신은 이노비즈협회가 진행하는 ‘이노비즈 PR데이’의 올해 첫 번째 업체로 선정됐다. 이노비즈RP 데이는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 기업을 알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노비즈협회와 기자단은 아하정보통신 본사와 공장이 있는 김포 양촌읍을 방문했다.

아하정보통신은 멀티스쿨넷이란 이름으로 1995년 설립됐다. 2001년 사명 변경 뒤 2007년 국내 최초로 LCD태블릿모니터 신기술을 인증받았다. 전자칠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현재 국내 시장의 40%를 점유한 1위 업체다. 전자교과, 전자칠판의 개념을 처음 만든 업체인 셈이다. 전자칠판은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지

정돼 중소기업만 생산할 수 있다. 아하정보통신의 전자칠판 제품은 해외 6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조달 선도기업으로 선정됐고, 2014년 2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2016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일본 현지공장을 준공해 일본에서는 ‘메이드인 재팬’으로 팔리고 있다.

내년에 출시할 전자칠판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해 학생의 질문에 답도 할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 ‘지구의 반지름 길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답하는 대신 AI전자칠판이 답하는 식이다.

아하정보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열 감지 카메라로 0.5초 이내에 얼굴을 판독하고 체온을 재는 스마트패스를 지난달 출시하면서부터다. 적외선 온도기는 독일 하이만에서, 얼굴 인식 기능은 중국 센스타임에서 가져왔다. 이들 부품을 아하정보통신이 보유한 제조·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만 걸치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도 출입 금지 알람이 뜬다.

아하정보통신의 스마트패스는 코로나19 이후 보급이 확산하고 있는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김진석 아하정보통신 사장은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는 2400도까지 재는 대신 체온은 정확히 재지 못한다”며 “저희 스마트패스 제품은 소수점까지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소·부·장 기업 수출 지원’ 온라인 화상 상담회

중기중앙회, 내일부터 2주간 상암동 중기 DMC타워서 개최
글로벌기업 60~80개사 참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부·장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오는 3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분야의 온라인 상담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11개사, 스타트업 5개사 등 국내기업 30개사가 참여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정한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분야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이 대거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사 60~80곳도 참석한다. 특히 독일 글로벌 전문기업 에보닉, 웨스토, 다임러, 아우디, 보쉬, 시멘스 등과 상담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한·독 기업간 소·부·장 공급망 확대 및 양국 기술협력에 있어 큰 성과가 기대된다.

상담회를 통해 판로를 확보할 기업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참여한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스마트공장 핵심요소인 로봇 모션 제어기를 30여년간 개발 및 생산해온 전문기업이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독일 산업자동화기술 대표기업인 웨스토와의 상담으로 공장자동화 부품, 솔루션 공급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촉매제, 첨가제, 타이코드 접착수지 등을 개발하는 정밀화학 기업 에프티씨코리아는 독일 현지에 도료, 잉크, 코팅제 첨가제를 공급할 희망하고 있다. 회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에보닉과의 상담을 통해 유통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술이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혜수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해외판로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부장 분야는 일반 소비재에 비해 해외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이 까다롭지만, 이번 화상 수출상담회를 통해 판로 확대 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등 소부장 강국 글로벌 대표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3년 새 4500명... 사라진 대형마트 여성 일자리

**이마트 남직원 240명 떠날 때 여성 2137명 줄어 9배차
오프라인 유통 침체에 신규 출점 제한·의무휴업 협약재
비대면 자동화 가속... 캐셔·피커 등 女일자리 집중타격**

최근 3년 새 대형마트 3사에서만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중 4500명은 여성 일자리에 해당한다. 이 중 4500명은 여성 일자리에 해당한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로 신규 출점까지 어려워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대형마트가 구조조정을 선언함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택트 소비 가속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자동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여성이 주요 인력인 캐셔 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3년 새 대형마트 인력 6000명 증발... 4500명 이상은 여성 =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의 3월 기준 총 임직원 수는 2만 5596명이다. 이 중 남성은 9468명, 여성은 1만 6128명으로 비중은 각각 37%와 63%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각각 13명, 170명 줄어든 수치로 남녀 근로자의 감소 폭은 13배에 달한다.

범위를 3년으로 넓혀 지난 3월과 2017년 말을 비교하면 이마트 근로자는 총 2377명이 줄었다. 이 기간 남성은 240명, 여성은 남성의 9배인 2137명이 일터를 떠났다. 이는 이마트의 계열사인 대형마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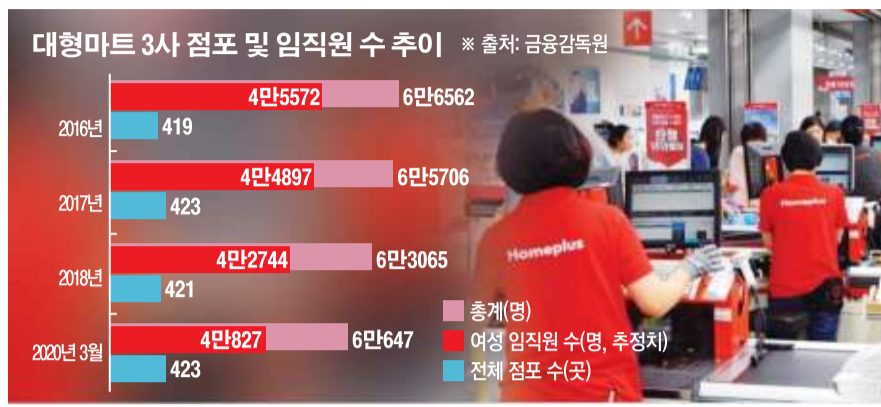
트레이더스, 전문점 등의 임직원을 합한 수치로 그 사이 주력 사업인 할인점 점포 수의 변동은 없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커머스 사업을 분사하면서 인력이 이동해 수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SSG닷컴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50%씩 출자한 회사로 약 1000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다.

비단 이마트만의 현상이 아니다. 롯데쇼핑의 올 1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2만 4761명이다. 남성과 여성 임직원 수는 각각 7761명, 1만 7000명으로 여성이 2배를 훨씬 넘는다. 2016년과 비교하면 총 1596명이 줄었는데, 이중 남성은 483명에 불과했지만 일터를 떠난 여성은 1113명으로 3배에 육박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큰폭으로 직원수가 줄었다. 백화점 부문의 남성과 여성 임직원 수는 지난 3월 기준 각각 1874명, 3013명으로 3년 새 145명과 371명이 축소됐다.

대형마트는 더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의 남성 근로자는 148명이 회사



를 떠날 때 반해 여성 일자리는 783개가 사라졌다. 남성의 5.3배에 달하는 여성이 회사를 그만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119개에서 125개로 되려 6곳이 늘었다.

2월 결산 법인인 홈플러스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2만477명에서 올해 2월 2만 2168명으로 무려 2607명이 감소했다. 2016년 142개로 정점을 찍은 점포 수가 140개로 줄어든 이유가 크다. 통상 대형마트의 여성 근로자 비중이 70~8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직원 1500여 명이 일터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때 최근 3년 사이 대형마트 3사에서 사라진 여성 일자리는 4500명을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 구조조정에 여성 근로자 축소 불가... 여전히 규제 연장 움직임 = 최근 대형마트의 여성 일자리 축소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 침체 외에도 정부의 규제 확대 여파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대형마트들은 202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신규 출점이 제한된 상태다.

또한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축소로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거스름없는 비대면 자동화 추세는 애꿎게도 여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특성상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캐셔나 피커 등으로 일하는데, 점포 별로 70~80% 수준"이라면서 "연령대가 높아 퇴사가 많지만 새로 문 연 점포가 없다 보니 신규 채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유통업체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그동안 큰 변화가 없던 대형마트 점포 수마저 감소 위기에 처한 점이다. 이는 곧바로 여성 일

자리 실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롯데쇼핑은 이달 말 빅마켓 킨텍스점과 롯데마트 천안점, 의정부점 등 3곳을 폐점하기로 한 데 이어, 7월 말 양주점과 천안 아산점, 빅마켓 신영통점의 영업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올해만 총 16곳의 매장을 정리하기로 한 롯데마트의 폐점 목표는 5년간 50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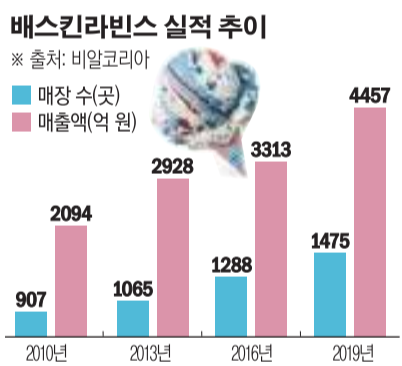
홈플러스도 최근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하고 안산점과 대전 둔산점, 대구점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자산 유통화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각 단계까진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마트 역시 빼빼로씨포와 헬스앤뷰티(H&B) 전문점 부츠 등을 정리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치권의 대형마트 옥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점포 출점제한 강화 방안'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26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점포가 매출이 가장 높은 주말(28일)에 영업하지 못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협회 명예회장은 "유통업의 비대면과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대기업 유통업은 특별히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bakmian 기자 only@

배스킨라빈스, 빙과 침체 속 '나홀로 성장'

**10년 새 매출액 2배 이상 증가
소비 트렌트 반영 매달 신제품
보수적 출점 통해 성장 속 안정**



양산형 아이스크림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배스킨라빈스'의 고속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던킨 브랜드가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985년 합작회사인 비알코리아를 설립하면서 한국에 진출했다. 한국 진출 초기에는 슈퍼마켓에서 팔던 양산형 아이스크림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좀처럼 시장을 확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꾸준한 신제품 출시와 프리미엄 디지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독보적인 1인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비알코리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매출액은 2016년 3313억 원, 2017년 3503억 원, 2018년 3912억 원, 2019년 44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 2010년(2094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비 경기가 얼어붙은 올해 1월

부터 5월까지 매출액도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꾸준한 제품 출시가 매출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배스킨라빈스는 매달 '이달의 맛' 신제품을 출시한다. 6월 출시한 아몬드 봉봉봉은 2주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매장 설문,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반응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며 "인기가 높은 제품은 상시 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소비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콘셉트 스토어를 만드는 등 점포 환경 개선 노력도 성장에 한몫을 하

고 있다. 현재 배스킨라빈스는 100가지의 아이스크림을 만날 수 있는 '브라운 정담점', 스누피 콘셉트의 '인친공항터미널점'과 '부산태화점', 심슨 가족 콘셉트의 '서현로테오점', 빛과 조명을 콘셉트로 한 '압구정역점', 키즈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꾸민 '석촌호수점' 등 총 10개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출점은 보수적으로 진행하며 '성장 속 안정'을 추구하는 점도 꾸준한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배스킨라빈스는 별도의 '점포개발팀'을 운영하며 출점 전 상권 분석에 힘을 쏟는다. 점포개발팀은 점포 입점 후보지 주변의 유동인구, 유효수요,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한 후 출점을 결정한다. 2010년 907개였던 매장 수는 해마다 50여 개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1475개로 늘었다.

한편, 전반적인 아이스크림 시장 침체에도 배스킨라빈스를 필두로 나뚜루와 하겐다즈 등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은 성장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이 시장 규모는 전년(8460억 원) 대비 8% 성장해 지난해 9144억 원을 기록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편의점 와인 주 고객은 '3040 여성'

세븐일레븐, 모바일 와인 주문 분석 결과 40.5% 차지

편의점 와인의 성장 주역은 경제력을 갖춘 3040세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 와인예약주문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 구매 비중이 전체의 22.3%로 가장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30대 여성이 18.2%로 뒤를 이어 3040 여성의 와인예약주문 비율이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전체 여성 구매 비중도 55.9%로 남성(44.1%)을 압도했다. 판매가 169만 원의 고가 와인 '샤도마고750ml'의 구매고객도 40대 여성이었다.

올해(1/1~6/26) 와인 매출은 전년대비 32.2% 증가하며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월 중순 모바일앱(세븐일레븐) '와인예약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무려 60.3%의 신장률을 보였다.

세븐일레븐은 와인의 대중화 트렌드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갖춘 3040세대가 핵심 고객층을 형성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5.4%), 중구(12.0%), 광진구(9.7%) 순으로 높았다.

세븐일레븐은 7월 중 '스마트오더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 모바일 와인예약주문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점포를 방문해 결제 및 픽업을 하는 구조다. 스마트오더 결제 서비스는 모바일에서 주문과 함께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고, 점포에서는 성인 인증 후 상품 수령만 하면 된다.

또한, 와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와인 7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골라담기 품목 수를 12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남주현 세븐일레븐 음료주류팀 CMD는 "와인은 흡술, 흡파티, 생활 속 작은 사치 등의 트렌드와 맞물려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와인 전성기에 맞게 다양한 가격대와 용량의 상품 구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기업 PR>

빙그레 '슈퍼콘' 딸기·민트초코칩 출시

빙그레가 '슈퍼콘'을 앞세워 여름철 성수기 공략에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출시한 슈퍼콘은 새로운 제조공법을 도입해 바삭한 식감, 풍부한 토핑과 독특한 포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슈퍼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출시 후 누적 판매 280억 원을 돌파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슈퍼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슈퍼콘 영상 광고는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으며 유튜브 공식계정에서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다. 입소문에 힘입어 슈퍼콘의 20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0% 늘었다.

제품 라인업도 확장했다. 기존 바닐라맛과 초코맛에 더해 신제품 딸기맛과 민트초코칩맛을 출시해 슈퍼콘 제품군은 총 4종이다.



올해는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을 슈퍼콘 모델로 발탁하며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산슬은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면서 새로 만든 캐릭터로 지난해 '합정역 5번 출구', '사랑의 재개발'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빙그레는 새로운 CM송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슈퍼콘 댄스 챌린지'에 이어 '슈퍼콘 트로트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양도금지 특약'... "투자 불가능"

옵티머스 사태 '점입가경'
'제3자 양도면 발주처 승인' 특약
성지건설 채권담보 자금 조달 실패
유동화 과정으로 간접 투자해도
'매출채권 펀드' 자체 성립 안돼



지난주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무실 입구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이 판매 초기 펀드 성공 사례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셈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2017년부터 자사 펀드에 대해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매출채권만을 사들임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고 소개했다. 특정 업체가 공기업에서 수주 등을 받아 발생한 돈(매출)을 받을 권리(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이

다. 증권사에 자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LH,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펀드 설정 초기에 특정 건설사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올린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담아, 초기 트랙레코드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옵티머스가 초기에 판매한 펀드는 중견 건설사인 성지건설이 LH,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올린 공사매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권에는 '제 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양도금지' 조항이다. 실제 성지건설은 2017년 해당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주처에 채권양도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사실은 성지건설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2018년 성지건설은 빌리언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당시, 최대주주의 대출에 회사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수사 결과, 배임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성지건설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

나, 해당 특약 때문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해 이를 철회한 것이다. 해당 채권은 사실상 유동화가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옵티머스가 펀드에 담았다고 주장했던 채권을 발행한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일반적인 매출채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판단에 따라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계약사항에 넣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설사 규모가 작거나, 시공능력이 낮은 회사일수록 해당 특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당 채권 보유 여부가 공사 완료에 직접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출채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양도를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특약 여부는 계약 당시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공사발주를 확인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계약서에 '매출채권 양도금지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대부분의 옵티머스 펀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과정으로 통해 매출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해당 매출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면 사실상 '매출채권 펀드'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일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량 채권의 경우 물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펀드 편입을 유도하기에는 유인요인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등급 순위가 떨어지는 업체의 매출채권은 양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해당 특약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NH·한투, 상장주관 실적 1위 각축전

SK바이오팜 공동주관 '대박'
신한금융투 누르고 1·2위 올라
하반기 카카오 계열사 상장 예고
주관사 선점 경쟁 치열해질 듯

코로나19로 IPO(기업공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주관 실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 대형 IPO가 대기하고 있어 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의 상장으로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현재까지 상장주관실적 1위인 신한금융투자를 누르고 단숨에 1, 2위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로 IPO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며 4월까지 신

규 상장 기업은 2016년 이후 최저인 9개(스팩 제외)에 불과했다. 상장주관실적 1위인 신한금융투자의 누적 공모액이 726억 원에 불과했고 NH투자증권은 333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414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이 소위 '대박'을 터트리면서 공모가를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은 2494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1679억 원 정도의 주관실적을 단번에 쌓게 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저조했던 IPO 시장은 최근 증시가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5월 들어 상장 청구 기업이 쏟아지고, 하반기 대형 IPO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때문에 1, 2위 경쟁을 하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각축전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또 하나의 '최대어'로 꼽히는 박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도 공동주관사를 맡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로 더 유명한 이 회사는 지난 5월 28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는데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가 3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IPO 기대주인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도 예고되어 있어 이로 인한 증권사들의 상장주관 실적도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업계에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게임즈의 기업가치가 최소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공모 규모도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6월 11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르면 3분기 증시 입성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지도 올해 안에 상장을 마무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위더스제약, 에이플러스에셋 등의 상장을 주관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센코, 아테나소프트웨어 등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상한가' 옛말

알테오젠·글로벌사 4.7兆 '빅딜'
발표 동시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주가 장중 14% 급락 후 보합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호재 발표와 동시에 하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 산업 특성상 기술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소식이 확인되면 주가 선반영에 따라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한미약품 학습효과를 토대로 '기술수출=상한가'도 옛말이 된 분위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지난 24일 글로벌 10대 제약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ALT-B4)의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규모는 193억 원, 마일스톤을 포함한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은 4조6770억 원에 달하는 '빅딜'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체결한 5조 원대 기술이전 사례의 뒤를 잇는 규모다.

대규모 호재 발표에도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다. 공시 발표 당일 알테오젠 주가는 장중 18% 급락했고,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술수출 공시 전까지 알테오젠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올 초 알테오젠 주가는 6만 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원천 기

제약·바이오 호재 발표 후 주가 변동률

기업명	공시일	반영시점 증가/감소 변동률
제테마	6월 26일	-10%
알테오젠	6월 24일	-13.88%
팜트론	6월 23일	3.46%
에스티팜	6월 22일	1.98%
레고캄바이오	4월 16일	5.46%

술 플랫폼의 기술이전 기대감에 480%가량 급등한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기술수출 소식을 밝혔을 때와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알테오젠은 1조6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소식을 밝히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이전은 시장에 서프라이즈 뉴스로 해석됐다면, 이번 기술수출은 발표 전에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어느 곳인지 파악하고 있고, 실제 계약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술수출 발표와 동시에 주가에 힘이 빠지는 건 레고캄바이오 사례도 비슷하다. 지난 4월 레고캄바이오는 5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소식을 밝혔지만, 당일 종가는 5.46% 상승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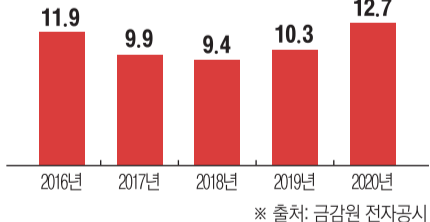
이인아 기자 ljh@

펄프가격 안정 속 재고자산회전을 상승

상장사 재무 분석

모나리자

모나리자 재고자산회전을 추이 (단위: 회)
 ※ 2020년은 1분기 기준



위생용지 제조업체 모나리자가 펄프가격의 안정 속에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이에 재고자산회전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지난 2012년 영업이익 114억 원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2018년에는 25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2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나리자는 올해 1분기엔 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실적이 탄력을 받으면서 재고자산회전율도 상승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을 나타낸 지표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수익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모나리자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지난

2015년 14.6회를 기록했지만 이후 적자를 기록했던 2018년(9.4회)까지 해마다 하락했다. 그러다 흑자기조를 되찾은 지난해 10.3회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엔 12.7회까지 올라섰다.

자연스레 재고자산 물량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5년 74억 원 수준이던 재고자산은 한때 90억 원대까지 불어났지만, 올해 들어 64억 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한때 제지업계에선 불황 속에 늘어난 재고자산이 현금흐름을 막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만큼 지금의 재고자산의 감소세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KB증권 성현동 연구원은 "모나리자는 펄프 수급 상황 개선으로 지난해 펄스 수

입가격이 77만9000원 수준으로 안정됨에 따라 흑자 전환했다"며 "올해 1분기 펄프 수입 가격이 63만4000원으로 재차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0.2%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모나리자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2% 수준 증가하는 데 그치고 판매비율도 늘었지만, 되려 영업이익은 11배 급증한 3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원가가 11.65% 감소한 덕분이다. 원가 절감 속에 실적과 재고자산 처리가 수월해진 셈이다.

한편 모나리자는 올해 들어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차입 조달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의 일반자금만 있었지만, 올해는 추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0억 원 규모 운전자금 대출도 받았다.

여기에 18억 원 규모의 미지급배당금 등 전체 유동부채가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은 지난해 315.57%에서 172.9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영 기자 kodae0@

www.bithum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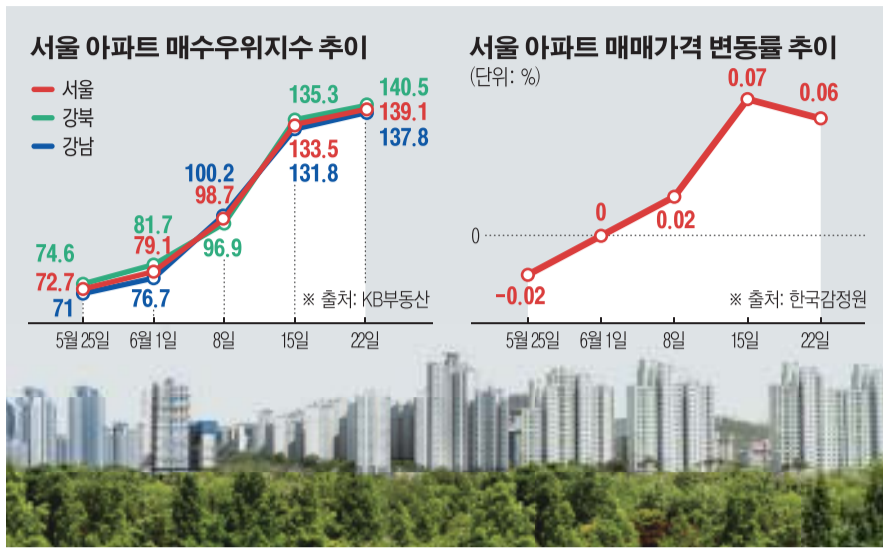
빗썸 지수 (2020년 6월 28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1,100	-15,500 (5.6%▼)	이오스	2,817	-151 (5.1%▼)
리플	212	-7 (3.2%▼)	비트코인골드	9,635	-445 (4.4%▼)
라이트코인	49,420	-2,080 (4.0%▼)	이더리움클래식	6,810	-400 (5.5%▼)
대시	80,450	-4,750 (5.6%▼)	퀀텀	1,896	-133 (6.6%▼)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비웃는 시장... 서울 아파트 '신고가 행진'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영향
매매수요 서울로... '역풍선효과'
'팔자'보다 '사자' 더 많아져
서울 매수지수 139로 '최고'
호가 높거나 매도 보류 늘어



(20일 기준) 100이하로 떨어진 이후 이달 초 5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한 수치는 6·17대책으로 서둘러 WLQ를 사려는 매수자들이 쏟아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 지역은 140.5까지 치솟았다. KB부동산 황재현 팀장은 "지난주 서울 매수문의가 급증하면서 이후 매수우위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6·17 대책 발표에 서둘러 계약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라도 급하게 잡으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강세다. 대책 직전 0.07% (한국감정원) 올랐

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책 직후에도 0.06% 상승하며 큰 반응을 변화 보이지 않았다. 실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선 시중에 나온 매물을 하루라도 빨리 잡으려는 매수세가 거세다. 강북구 미아동에선 지난 15일 8억5000만 원에 거래된 래미안 트리베라1단지 전용 84㎡ 호가가 최근 8억5000만~8억80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에선 지난 23일 전용 59.28㎡가 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달 초 거래가격(6억15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오른 값이다. 미아동 H공인 대표는 "전세난이 심화되니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데다 인근 경기권에 대한 규제 강도까지 세지면서 차라리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역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며 "매물 씨가 마르면서 호가는 높아지는데 이를 잡으려는 매수자는 꾸준히 집주인이 매도를 보류하거나 호가를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이단지 전용 84㎡도 9억 원을 찍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뒤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던 강남은 6·17대책 막차 수요가 거래를 마친 뒤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최근 잠실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중 리센츠에선 전용 84.99㎡가 지난 22일 23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였던 22억 원(4월)보다 무려 1억 원 높은 값이다. 대치동 래미안 대치밸리스 전용 84.97㎡는 지난 19일 28억5000만 원에 팔려나갔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6·17 대책 직후 대치동 일대 아파트는 앞으로 희소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축제 분위기였다"며 "호가를 높여도 거래로 이어지지 집주인들

이 가격을 내릴 조짐은 커녕 더 높일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개발 호재로 시장 과열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놨지만 오히려 '급등할 곳'으로 찍어준 모양새가 됐다"고 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감지된다. 잠실 옆 신천동의 파크리오아파트에선 전용 144㎡가 지난 26일 22억4000만 원에 팔렸다. 올들어 최고가다. 대책 직전 최고가는 22억1000만 원(6월13일)으로 불과 보름만에 3000만 원이 경중 뛰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붙을 지른게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적지 않다.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되레 오르는 집값에 조만간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와 넘치는 유동성, 규제 내성 등으로 그 실효성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여 연구원은 "눈치보기 장세에 따른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규제 지역 확대나 세 부담 강화 등 추가 규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내성이 커진 데다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김포·파주 집값 계속 오르면... 내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

박선호 국토부 차관 방송서 밝혀
주민들 “신축 단지만 상승” 반발

정부가 다음달 김포와 파주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파주시·김포시 일대 집값 상승 현상에 관한 물음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 역시 앞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다"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22일 기준)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급등했다. 전주만 해도 김포의 주간 상승률은 0.02%에 불과했으나 일주일 새 무려 90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실제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면적 59㎡가 지난 20일 최고가인 4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억5000만~3억84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 원 중반대에 형성됐다. 인근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전용 84㎡도 같은 날 5억 원에 거래됐는데 연초 대비 1억 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김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뒤 호가를 올려 다시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포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인데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규제에서 제외됐던 지역들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지역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인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와 안산 단원구의 경우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선별적 지정을 건의키로 한 가운데 안산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부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확대 해석하며 과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통로까지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철철 인천시 주택복지국장은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의 경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부영 '나주부영CC 40만㎡' 한전공대 기부

부영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본사에서 한전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해 부영그룹은 한전공대 부지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나주부영컨트리클럽(CC)' 40만㎡를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에너지 공학 특화 대학이다.

부영 기부로 한전공대는 교지 마련 부담을 덜게 됐다. 부영이 기부한 교지 가치는

감정가가 806억 원에 이른다. 한전공대 설립 추산 비용인 5000억 원의 10%를 훌쩍 넘긴다.

부영 측은 한전공대 설립이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부영이 기부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교육 분야 사회공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부영



그들의 기증이 한전공대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고, 전남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금주의 분양캘린더

7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9406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분양 시장 비수기인 장마철에도 전국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1개 단지,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 센트럴아이파크자

이'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신도시세일풍경채레이크시티',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오피스텔)' 등이 청약의 진행한다.

총 15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수원시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과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천부평우미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 등 주요 단지 청약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28곳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파크에비뉴'와 경남 김해시 삼문동 '이안센트럴포레스트1단지', 광주 동구 소태동 'e편한세상무등산' 등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다음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9곳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원골드'와 경기 고양시 행신동 '행신파밀리에트라이아하이' 등은 다음 달 3일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접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힐스테이트광산 2순위				
6/29 (월)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비버리캐슬 1순위(당해지역)	7/1 (수)	전북	정읍시	상동	상동1차영무에다움 1순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안동래센트럴시티 2순위
											경기	수원시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
6/30 (화)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비버리캐슬 1순위(기타지역)	7/2 (목)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영리센트럴빌라드 (~7/3)				
											광명시	철산동	광명푸르지오포레나 1순위(당해지역)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1순위(당해지역)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1순위	
											광주	광산구	소촌동	힐스테이트광산 1순위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
7/1 (수)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비버리캐슬 2순위	7/3 (금)	전북	정읍시	상동	상동1차영무에다움 2순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더샵데시앙2차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신도시한국이텔리움더퍼스트
											충북	청주시	운동동	청주동남파라곤
											계약	경기	군포시	당동
부산	연제구	거제동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사이드 (~7/2)											
7/1 (수)	접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비버리캐슬 2순위	7/3 (금)	계약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광명시	철산동	광명푸르지오포레나 1순위(기타지역)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1순위(기타지역)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2순위	
											평택시	고덕면	호반써밋고덕신도시2차 1순위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엘크루센트로 1순위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롯데건설 대표>

‘조세 포탈’ 하석주 2심 다시 “법리 오해”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생태계 톱 20 진입

대법 “공사대금 부풀린 해에 세금 덜 내... 사업연도 잘못 적용”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사진) 롯데건설 대표 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하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롯데건설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하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횡령 부분의 1심 판단을 유

지하면서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하 대표에게는 이 전 대표의 후임 대표 재임 기간의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27억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롯데건설의 법인세 납부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롯데건설이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덜 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누락된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풀려진 금액은 이미 공사금액 지출 사업 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됐어야 하므로 반환되더라도 돌려받은 사업 연도에 이익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봤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게임·생명과학 부문 강세

서울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4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 생태계 분석기관 스타트업 지능은 올해 보고서를 통해 100개국 270개 도시 중 서울이 글로벌 창업생태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특히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의 등장, 연구개발(R&D) 역량, 높은 특허 출원 등에서 주목받아 지난해 차세대 유망 생태계인 ‘NEXT 30’ 단계에서 ‘TOP 20’ 단계로 순위가 급등했다. 공공정책 분야로는 서울시의 인공지능(AI)·핀테크·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또 서울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정책,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1조20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 신생 스타트업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창업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소개했다.

서울은 총 7개 평가항목 중 지식축적, 시장진출, 생태계 활동성, 인재 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글로벌 연계성, 자금조달, 지속성장지수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47조 원으로 글로벌 톱5(실리콘밸리·뉴욕·런던·베이징·보스턴)의 40% 수준이었다. 초기 단계 펀딩 총액은 1조2000억 원, 시리즈 A 펀딩의 중위값은 34억 원, 시드 단계 펀딩의 중위값은 5억4000만 원 규모로 분석됐다.

서울 창업 생태계 내 강세를 보이는 부문은 게임 산업과 생명과학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창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서울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분석하고 창업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꽃길만 걸길 28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창 창포원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사업제안 비용 보상해달라” GS건설 1심 패소

민간투자→국가재정 사업 전환 법원 “정부 재량... 소송 부적법”

국가 시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탈락한 GS건설이 제안서 작성 등 제반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

안 비용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5년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부가 시행하는 안성~세종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국토부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보충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는 GS건설의 제안에 대해 적격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재무성이 부

족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PIMAC은 GS건설의 제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400억 원 상당의 건설 보조금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7년 8월 제안서를 반려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간투자에서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GS건설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부에 제안 비용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더불어 국가를 상대로 제안 비용

(약 23억5600만 원)과 기타 비용(약 41억1927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선 법원은 GS건설의 국토부장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국토부의 ‘거부 통보’는 사실상 통지 행위에 불과할 뿐 실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GS건설이 지출한 비용은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0. 07 VOL.07

가수 주현미, 주옥길은 영국에 단상연 위스키와 와인, 여행의 깊은 맛을 애용한다

최적의 노후생활을 위한 '일터'가 있다

유기물 단백질, 허리를 조심하세요! '척추외과'를 찾는다

장수사실(장수)의 비밀은? 영혼을 살리는 장수의 습관과 생활 습관

장수사실(장수)의 비밀은? 영혼을 살리는 장수의 습관과 생활 습관

장수사실(장수)의 비밀은? 영혼을 살리는 장수의 습관과 생활 습관

Trekking
산·물·바람 따라 사색여행

COVERSTORY 산·물·바람 따라 사색여행

PART1. 동산보다 여유 있게 산책보다 자유롭게
PART2. 대자연 속 '동행' 하말라야와 일프스를 걷다
PART3. 조금만 걸러 두면, 조금 더 걸어도 좋대
PART4. 다 함께 돌아 지구 한 바퀴
PART5. 관악산 자락 걸으며 한갓진 만나질 산림욕
PART6. 발길 따라 마음 따라 고르는 휘황저력 도래령
PART7. "아는 만큼 즐긴다"

더불어 숲 나무는 영원하고 성벽은 덧없다

고수열전

화나면? 물 마신다, 그러곤 꿀!
목으로 넘기자 상쾌한 땀맛이 혀에 고인다. 진귀한 차라고 굳이 내세우지 않으나, 고재운의 표정은 온근히 득의양양하다. 고재운 고수는 보아차에 풍당 빠져 산다. 요빈 세상은 그저 보아차를 탐구하는 태에 시간을 쓰기로 했다? 진정한 보아차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 그는 줄기차게 명차 원산지를 찾아 중국 모지를 순례했다.

신라산가 만난 사람

일곡진 언연으로 지안산에서 울연을 지다
영원한 야구인 김성환

"바티고 어디다 마흔네 우리 옷 문화를 꽃피우다"
생활한복의 대표 브랜드 돌싱이 김남희 대표

사대를 읽는 유행가, 세대를 잇는 트로트 주현미

김혜영의 느린 여행

신안 기암·소악도 '순례자의 길'
천남은 섬 부자다. 우리나라 330여 개 섬 중 2165개가 천남에 있다. 그중에서도 신안군에 100개가 모여 있다. 신안군을 천사 섬이라 부르는 이유다. 2019년 10월 신안군 기암·소악도에 예수의 12사도 이종문 먼 작은 예배당 열두 개가 지어졌다. 아무 물 것 없던 섬에 천사의 문충이 내린 듯했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변 화재 덕에 '최대 수혜'

봄이면 마을이 꽃향기로 가득해서 붉은 지평 '행동'을 통해, 서울 근교의 순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활동지가 최근 특별혜택 화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개발이 한창이지만, 그만큼 지역가치 상승 잠재력이 풍부한 활동지구를 직접 찾아왔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할문식+건강한 여름 다이어트를 위한 아몬드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박신욱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팀장 퇴직 후 노후 대비 '절세가 답이다'

IT·BT 융복합 농작물 생산 결정체 '수직형 농장'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

⑥ 스마트팜 핵심 '기술력'... IT 강국 한국이 이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지하 1층에 가면 국내 스마트팜 기업인 팜에이트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형 수직농장(메트로팜)을 볼 수 있다. 상도역 메트로팜의 규모는 약 70여 평. 이곳에서 7개의 작물이 소비자의 수중에 따라 또 작기에 맞춰 재배된다. 한 달에 약 1톤가량의 엽채류가 생산되며 1일 생산량으로 환산해 보면 약 50kg,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비교해 보면 노지 재배의 40배에 이른다. 메트로팜은 수직형 농장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수직형 농장이란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직형 농장은 농업과 IT, BT 등의 기술이 융복합되는 영역으로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수직형 농장·빌딩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LED 등 IT 분야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수직형 농장의 정의를 작물에 적합한 재배환경으로 제어해 외부환경 제약 없이 안정·계획적으로 연중 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절감, 농지 부족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농업 생산성으로는 2050년 92억 명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지에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수직형 농장은 아직 농업의 대체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미래형 스마트팜으로 전 세계가 적극적인 기술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에어로팜(Aero Farms)은 세계 최대의 수직형 농장을 운영한다. 2004년 뉴저지주와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로 6400㎡의 폐공장을 수직형 농장으로 리모델링했다. 노지재배보다 물 95%, 비료 50%를 절약하며 살충·제초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면서 1000톤의 채소를 생산한다. 샐러드·주스 등 가공시설까지 함께 설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은 태양광 병용형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개발해 상추의 경우 여름에는 정식 후 16일, 겨울에는 23일 후에 수확이 가능해 생산비 대비 2배 수익을 얻고 있다. 벨기에는 자동이식·재배베드 이동 등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작물에 따라 3~6배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었고 엽채류 중심으로 이용되며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허브 생산

7호선 상도역 엽채류 '메트로팜' 한 달 1톤 생산 '미니 수직농장' 환경 제약 없이 안정적 작물 생산 '에어로팜' 노지재배보다 물 95%·비료 50% 절감

에도 활용한다. 일본은 수직형 농장 보급 확대 중립대책을 통해 150억 엔을 투자해 수직형 농장을 15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수직형 농장 시장 규모를 2009년 95억 엔에서 올해 417억 엔까지 4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시설재배(비닐, 유리, 수직형 농장) 중 수직형 농장 비율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에 하나로 스마트팜을 선정했고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 13억8000만 원을 투입해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의 발굴 및 실증을 해왔다.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설비를 구축하거나 전용 건축물을 신축해 원예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팜에이트가 경기도 평택에 230㎡ 규모의 샐러드류 재배를 시작했고 식물재배 전용 LED 수직형 수경재배시스템 구축 및 생산되는 정보 수



식물 공장의 특징 (완전 제어 시스템으로 재배된 작물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무농약 청정을 지향해 맛과 식감이 보다 뛰어나.)

시스템 특성	작물 특성	기타 장점
- 다량생산(다량재배): 면적당 생산량 증가, 노동 효율 향상	- 폐기를 최소화	- 지리적 입지 조건과 풍토 영향 적음 (사막, 극지방 등에서도 가능)
- 안전생산(클린룸): 병충해 유입 통제, 오염원 유입 통제	- 무농약 청정	- 도심 근교에 건설 가능(운송비 및 탄소배출량 절감)
- 안정생산(환경제어): 계획 생산, 계절에 관계 없는 연속 생산	- 병충해 피해 최소화	- 수경재배이므로 연작장애가 없고 토양 관리 불필요
- 작물별 메뉴얼 재배, 재배 품질 조절	- 식감과 맛 개선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메트로팜'.

정부, 8대 핵심과제 선정 올 102억 투자 시범사업 나서 LED·센서·금형 등 전문업체들 협업 통해 통합운영 기술력 높여

집 활용을 통한 수직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 2019년에는 하나육묘, 상록수, 넥스트은 3개 업체가 각각 육묘와 인삼새싹, 엽채/허브류 재배에 들어갔다. 하나육묘는 식물공장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육묘 생산으로 일반 농가에 무농약 고품질 묘종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록수는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한 청정 무농약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ICT

기술 적용을 통한 생육기간 단축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했다. 넥스트은은 충북 옥천의 국유지 임대 터널 안에 수직형 농장을 설치해 기능성 천연물을 생산·공급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선도 및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 구축에 나서 102억여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 8개소를 선정했으며 연말까지 매출, 단위면적당 생산량 및 포기당 중량 등 성과분석을 통해 작목별 재배기술 및 환경제어 매뉴얼, 성과사례집 등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농업법인과 농업인 등 52곳이 신청해 큰 관심을 받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수직형 농장 시장 규모를 현재 3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2028년에는 92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3월에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해 '2020년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수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판매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과 스마트팜 수출 유

망국가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로 이행하는 초기 시장에 많은 업체가 몰려들고 있다. LED, 센서, 금형 등 특정 분야에만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 ICT기반 수직농장 통합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복합환경 제어 플랫폼을 갖추고 100평 이상 대규모 수직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재배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인공지능(AI)기반으로 재배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술력을 높이려고 10여개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수직농장 선진국인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이 현재 해외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한국도 그에 버금가는 기술 수준과 시장개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2020)'에 코트라와 공동으로 스마트팜 수출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형 스마트팜을 해외 바이어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

정부지원 수직형 농장 1호 '팜에이트'

"겨울철 채소 부족 이제 걱정 없죠... 곧 日·싱가포르에 첫 수출"

**5억 국비 지원 받아 2018년 샐러드 재배 시작
현재 1100여 평 농장 운영 국내 최대 업체로
투자비용 절감 '한국형 수직농장' 보급 계획**

2017년 정부의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1호로 선정돼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2018년 11월 230㎡ 규모에서 샐러드류 재배를 시작한 팜에이트는 현재 1100여 평의 수직형 농장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스마트팜 회사로 거듭났다. 팜에이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에도 나선다. 팜에이트는 2004년부터 새싹채소를 시작해 다양한 샐러드채소 품목을 재배해 바로 먹을 수 있게 소포장 완제품 샐러드로 가공제조해 유통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샐러드 제품 주요 원재료인 엽채류와 과채류 대부분은 보통 노지와 온실에서 재배한

다. 샐러드 소비는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이뤄지고 당사는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사계절 중 항상 여름과 겨울에 샐러드 원물 부족에 시달렸다. 28일 강대현 플랜티팜(팜에이트 스마트팜 자회사) 대표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채소 원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하게 됐고 그 결론이 바로 가장 고도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인 '실내 수직농장'이었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실험형 수직농장(60평)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품목의 재배기술을 축적하고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증축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총 1100여 평)의 수직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제를 극복했다. 2016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고 2018년부터는 수직농장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직농장 설비 보급 사업도 시작했다.

팜에이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에도 나선다. 강 대표는 "수직농장 설비 플랜트 수출은 주로 중동과 동남아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현재 수출을 앞둔 곳은 몽골과 일본, 싱가포르"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1차분 컨테이너 수직농장(식물공장) 제작을 완료하고 선적을 앞두고 있고 2차분을 추가 제작 중이다. 싱가포르는 수직농장과 가공공장이 연계된 설비 구축과 기술노하우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수출 일정 협의가 본격

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몽골은 올해 5월 수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무 협의가 중단돼 연기됐다. 팜에이트는 성장도 앞두고 있다. 강 대표는 "스마트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수직농장 시스템은 그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라며 "수직농장설비 구축비용은 10년 전부터 비용 절감형 수직농장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현재는 약 1/10 수준까지 왔지만, 일반 농가에서 적용하려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며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에 성공하면 양질의 투자자금을 지속해서 공급받아 기술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초 비용 절감형 한국형 수직농장 모델을 빠르게 정립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정



팜에이트 자회사인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

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 회사가 농업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우리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세상 모든 은행을 연결하다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한번에! **우리WON오픈뱅킹**



우리오픈뱅킹 EVENT

EVENT 1. 오픈뱅킹 신규등록 선착순 이벤트

- 대상 : 타행 계좌 첫 등록시 자동응모 ※ 기존 등록 고객 제외
- 경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매)
- 기간 : 2020년 6월 4일(목) 17시부터 선착순 10만명 (7월중 모바일 쿠폰 발송예정)

EVENT 2. 타행계좌 추가등록 이벤트

- 대상 : 타행 계좌 추가 3개 등록시 자동응모
- 경품 : 에어팟프로(5명), 스마트밴드(10명) 외 1,000명
- 기간 : 2020년 6월 4일(목) ~ 7월 31일(금)
- 발표 : 2020년 8월 14일(금) ※ 이벤트 당첨자발표에 공지

EVENT 3. 우리WON모아통장 가입 이벤트

- 대상 : 우리WON모아통장 가입 후 잔액 1백만원이상 고객 자동응모
- 경품 : GS25편의점 모바일 1만원 상품권(1,000명)
- 기간 / 발표 : EVENT2와 동일



우리WON뱅킹
다운로드하기

3차 협력사까지 자금 지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SAMSUNG

삼성전자는 국내 협력회사 및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 인력, 자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1년부터는 대금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

로 변경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상생펀드, 물대지원펀드, 설·추석 등 명절 시 구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자금이 필요한 협력회사에 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 등을 업체별 최대 90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3차 협력회사 전용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

성했다. 2018년에 협력회사 400여 개사에 8300억 원의 지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회사까지 납품대금 현금결제를 정착시키고자 2017년에 5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 1차 협력회사에 최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1차 협력회사가 자금 부담 없이 2차 협력회사에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회사 간 납품대금 현금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의 물대지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3차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2019 상생협력데이'에서 김기남(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된 신소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000억 투입해 중소부품사 대출 지원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판매 대리점과 부품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기아차 판매 대리점과 현대모비스의 완성차 부품 판매 대리점에 상생 펀드를 조성, 임차료 지원 등 올해 총 557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한 327억 원보다 약 70% 늘렸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400억 원의 상생 펀드를 통해 판매 대리점의 운영 및 시설 투자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대리점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가 2016년부터 운용 중인 상생 기금 200억 원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00억 원씩 새로 기금을 낸다. 또한, 판매 대리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1억 원의 임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리점 낡은 시설 개선에도 36억 원을 투입한다.

현대차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부품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



현대차그룹은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채용박람회를 열어 협력사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의 350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운영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예치하고, 은행은 예치금의 3.5배인 3500억 원을 중소 부품사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또 기술보증기금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100억 원을 출연해 부품사에 우대보증이 시행되도록 돕는다. 신용보증기금의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에도 100억 원을 출연한다. 중소 부품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두 기관이 감면된 보증보험료로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SK이노, 급여 1% 기부 29억 상생기금 조성



SK그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서울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위치확인 기기 '스마트 지킴이' 1000대를 서울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 지킴이는 치매 노인과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SK건설은 세계적인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업체인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블룸 SK 퓨어셀 설립을 마치고 현존 세계 최고 효율의 연료전지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SOFC란 세계 최고 효율의 신재생 분산발전설비로, 발전 효율이 기존 연료전지보다 높다. 설치 면적이 작고 안전하다. 백연(white smoke)과 미세먼지 배출이 없어 대기질 향상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블룸 SK 퓨어셀은 협력업체 후보군 총 130여 곳 중 10여 개 업체와 상반기 내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치매·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기 '스마트 지킴이'.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공장(C LX)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열고 총 29억6000만 원을 협력사에 전달했다.

전달 금액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 중 절반인 25억6000만 원에 정부·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모아 조성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구성원 총 6819명이 지원 대상이다.

능력소핑

실력 300% UP ▲
개발 200% UP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국내외 협력사에 스마트 팩토리·시스템 자동화 지원



LG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국내외 협력사가 생산라인을 자동화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100개 협력사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

로 해외에 있는 협력사가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 무이자 자금 등을 지원한다.

LG화학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 및 혁신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을 조기 집행한다.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큰 친환경 분야 사회적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LG전자와 함께 'LG 소셜캡퍼스'도 운영 중이다.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기맹점 500여 곳에 한 달치 월세의

50%를 지원했다. LG이노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섰다. 협력사 자금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63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협력사들이 긴급히 활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조기 집행했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회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85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마련해 긴급 시 필수 요건이었던 보증보험 발행의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중소 협력사의 보험 발행 비용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LG는 신선타 로봇 자동화 교육과정을 통해 협력사에 로봇 조작 등 맞춤형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통해 공정거래 확립



한화그룹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만이 그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라는 김승연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5월 출범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총 51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마감횟수 월 3회로 확대 △대금지급기일 10일로 단축 △전액 현금 지급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등 완화된 대금지급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에너지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생산설비와 에너지 현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 운영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 2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토탈도 설비, 연구, 품질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협력사 안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 종합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영 현황 공유, 하도급법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최근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하도급법 위반 예방 등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 협력사 법무 컨설팅·교육 무상 제공



두산의 상생경영은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두산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중소 협력사를 위해 생산성 혁신, 노무, 법무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상생 격려금 및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두산의 각 사업부문 12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생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중점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리딩 서플라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년부터 5년간 전체 협력사 540여 곳 가운데 26개 협력사를 선정해 리딩 서플라이어를 진행해왔다.

2018년 참여 협력사인 테스크는 제조 라인 레이아웃 개선을 추진해 물류 동선 최적화, 생산 효율 향상 효과를 거뒀으며 양산품 초기 품질도 기존 대비 2배



동현수(왼쪽) ㈜두산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총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협력사 관계자들과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상 향상된 성과를 냈다. 두산중공업은 △상생결재 시스템 도입 △동반성장 아카데미 개최 △성과공유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4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인 두텍과 '하동화력발전소 1~4호기 옥외 저·상탄기 개·보수공사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

두산중공업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기업 인증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

상생펀드 2000억 조성... 우대금리 대출



GS칼텍스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구매대금의 경우 100%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20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2019년 말까지 90여 개의 협력사에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사도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말 협력사 CSR 행동규범을 만들며 궁극적으로 GS칼텍스의 ESG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협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차원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협력사가 ESG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중소 협력사가 제조·생산기술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력사에 국책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매칭



GS칼텍스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고 연구자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제품 개발과정에서는 사업정보, 현장정보,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생산된 시제품을 실제 공정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용이하게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GS칼텍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기술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비용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711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기술 컨설팅·설비 지원해 협력사 경쟁력 제고



조현준 효성 회장은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며 평소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효성은 협력사의 핵심 경쟁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컨설팅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 부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사에 조각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돕고 있다. 협력사가 안정적인 공급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춰, 곧 회사의 원가절감과 매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협력업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생산 관리 시스템, 원격 검수 시스템 등 설비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효성은 매년 두 차례 동반성장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에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19개 협력사를 초청해 상생 간담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효성은 협력업체들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효스티엔씨는 원단 생산 협



효성이 협력사와 '상생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력업체들과 함께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프랑스 파리 모드 시티를 비롯한 글로벌 섬유전시회에 동반 참가하고 있다. 효성과 협력업체 간 시너지를 통해 향후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장기적인 사업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 3년간 21개 해외 전시회에 198개 업체가 전시회에 동반 참가했다. 효성은 이외에도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협력업체의 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하고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해 해외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타격 파트너사에 3·4월 임대료 30% 인하



롯데그룹은 다양한 상생활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26일 부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특별 생방송 '힘내요 대한민국'을 서울 양평동 본사와 부산 해운대를 연결한 이원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의 재고 부

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기 패션, 잡화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하는 '쇼킹 프라이스, 창고 대개방'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중소기업 대상 대금 지급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롯데월드몰, 롯데몰, 롯데피트인 등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위해 3, 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브랜드는 760여

개로 쇼핑몰에 입점한 전체 브랜드의 약 67%에 이른다.

롯데는 산지 농가를 돕기 위해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서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4월 롯데몰수지에서 경기도화웨 협회 소속 농가들의 상품 판매스토어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각종 행사 취소로 매출이 급감한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롯데마트는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우리 농수축산물 농가 돕기 행사를



롯데는 소비 침체와 수출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산지농가 돕기 행사'를 가졌다.

진행했다. 총 1500여 톤 규모로 70억 원에 이른다. 화훼농가 돕기에도 나섰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4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협력사 해외 전시회 부스 임차비·통역 지원



KT는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두바이 '자이텍스(GITEX)'와 베를린 '이파(IFA)' 같은 대규모 글로벌 행사에 KT 브랜드를 활용해 동반전시 형태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문성 있는 바이어와 협상이 가능한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KT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협력사에 부스 임차비, 전시회 필요한 장비 임차비,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고 통역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동반위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로, 동반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18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컬래버레이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사업 개발 가능 기술을 발굴해 KT 사업 부서와 함께 공동 사업화를 지원하는 KT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연구개발,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증강현실(AR) 분야 실감형 솔루션 전문기



KT가 9개 중소기업과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2018'에 참여했다.

업 애니펜 등 총 16개 회사를 선발했다.

KT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육성을 위해 2017년 9월에 분당 사옥에 'AI교육센터'를 열어 협력사 직원 등 280여 명의 교육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2,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5G 상용화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네트워크협업체'를 구성해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연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출연해 사업을 위한 신규 솔루션 개발도 지원 중이다.

6개 점포서 장학생 600명 뽑아 6억 전달



신세계백화점이 코로나19로 힘든 협력사원 및 지역 소상공인 자녀들 후원에 나섰다.

신세계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2020 희망장학금'을 5월 말 전달했다. 광주, 대구, 센텀시티, 마산, 김해, 의정부 등 6개 점포에서 600명을 선발해 총 6억 원을 지급했다. 후원금은 신세계백화점의 중소기업 이하 협력회사와 인근 소상공인, 장애인 및 난치병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지역 인재들에게 돌아간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더불어 관공서 추천 학생, 전통시장 상인회 자녀 등 효행과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이 수혜 대상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자녀들도 선발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서 이웃들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 상생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식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백화점의 협력회사 가족들과 지역업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4년간 약 7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신세계는 센텀시티점 등 6개 점포에서 '2020 희망장학금' 대상자 600명을 선발해 총 6억원을 지급했다.

신세계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봄에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를 위해 식물 화분 1만여 개를 매입해 고객 사은품으로 나눠줬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키울 수 있는 '반려 식물'들로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일상에 위로를 더한다는 취지였다.

지역 농가에 힘을 주는 '신세계 퍼머마켓'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각지의 우수한 특산품을 선보이는 이 행사는 백화점과 산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과감히 없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유통 상생 모델로 꼽힌다.

우수 中企 매월 1곳 선정 '홍보 캠페인'



CJ ENM 오쇼핑 부문은 중소기업의 홍보와 광고를 지원하는 '소중한 이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파트너사의 제품과 기업 소개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와 광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명 '소중한 이야기'는 '소(小)상공인과 중(中)소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의 의미와 함께 'CJ ENM 오쇼핑 부문의 소중한 파트너를 소개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CJ ENM 오쇼핑 부문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뽑은 이름이다.

CJ ENM 오쇼핑 부문과 함께 성장해 온 협력사 중 상품력이 우수하고 협력 관계가 두터운 우수 파트너사가 대상이다. 이 중 매월 한 곳을 선정해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선발된 협력사에는 해당 월에 기업과 제품 소개, 대표이사 인터뷰, 광고 등으로 회사를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 제작된 콘텐츠는 신문광고 및 TV CF, 언론사 인터뷰, CJ ENM 오쇼핑 부문 공식 기업 블로그, 유튜브, 책자 등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된다.

소중한 이야기 캠페인은 상품 개발과 생산에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분야는 아직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



CJ ENM 오쇼핑은 중소기업의 홍보와 광고를 지원하는 '소중한 이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포트라이트'를 선보인 이야기와 TV홈쇼핑의 안정된 판로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면세점으로 채널 확장을 이룬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호범 CJ ENM 오쇼핑부문 대외협력담당 사업 부장은 "그간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 우수 협력사에 고마움을 전하고, 우수 협력사의 더 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이야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높이고 상생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됐다.

3월 처음 진행된 협력사는 아이웨어 전문회사인 '태석광학'이다. 태석광학은 선글라스와 안경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국내 홈쇼핑 업계 아이웨어 부문 1등 기업이다. 태석광학의 소중한 이야기 콘텐츠는 CJ 오쇼핑과 함께 자체 브랜드

'특허 개방'으로 협력사 기술경쟁력 강화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협력사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공개와 무상 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특허 개방과 이전 건수는 약 200건에 달한다.

협력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술 역량을 축적해 부품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협력사에 지원한 신제품 기술개발 관련 금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시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가의 연구시험 설비를 갖춘 시험실을 개방해 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 시설을 활용한 협력사의 시험 장비 사용 횟수는 2300여 건에 이른다.

현대모비스는 2016년부터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 협력사에는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부품 개발 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협력사의 초기비용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대모비스가 전국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형 비용도 양산 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3차 협력사 전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펀드는 2차 협력사 전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협력사 대출 목적으로 은행에 예치한 대출 지원 금액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1·2차 협력사 간 고충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분명, 이기나긴 골목에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얼어붙은 이 골목에서
당신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고
당신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믿습니다
이 골목의 고비만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디라도
신한은행은 당신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힘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이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금융지원

- ▶ 피해 중소기업 보유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 피해기업 및 종업원, 코로나 19 확진자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
- ▶ 대구, 경북지역 비대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운영

- ▶ 경영애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 ▶ 사업영위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상담
- ▶ 서울 지역 총 3개 운영 중 (중부, 남부, 강남)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 ▶ 신한은행 거래 개인사업자 대상 무료 광고 지원
- ▶ 신한은행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광고 게시
- ▶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행 및 연내 확대 예정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은행 App '신한SOL'에서 메뉴 → 간편서비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 신한SOHO성공지원센터의 경로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상단 QR 코드로 바로 접속 가능)

※금융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0391-1호 (유효기간 2020.04.10~2021.03.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우수 농업기술 이전 통해 매출 4~5배 확대”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농산물 가공 등 기술 4000여 건 보유... 3년간 1370건 이전 2년 전 카자흐스탄 이어 러시아에 딸기 스마트팜 수출 계획

“기술이전이 10년째인데 올해부터는 규모가 있는 50개 업체에 집중해 매출을 기존 2.5배 정도에서 4~5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박철웅(사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23일 전라북도 익산 재단 이사장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올해부터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바뀌 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익산이 고향이다. 이리남성과와 전주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만 18세의 나이에 현 재단 터에 있던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에 입사해 2013년 기획조정관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박 이사장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 이사장은 “작년에 86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는 950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진청에서 매년 나오는 우수기술은 400건 정도로 재단이 보유한 기술은 4000건에 달한다. 농산물 가공, 비료 만드는 기계, 각종 양봉기술, 떡 만드는 기술 등 다양하다. 재단은 3년간 1370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박 이사장은 “기술활용 성공률을 우리가 42%라고 봤을 때 선진국이 37~3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기술 이전한 기업에 시드머니로 초창기 5000만 원에서 시작해 수준이 올라갈수록 5억 원까지 자부담 30% 기준으로 지원한다. 현재 매출액은 100억 원 투입하면 250억 원, 2.5배 수준으로 나온다. 국회에서 국가가 70%를 지원하는데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4~5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은 또 농진청이 개발한 종자를 퍼뜨



리는 역할도 맡고 있다. 박 이사장은 “재단 설립 전에는 종자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5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2년이면 농민 손으로 갈 수 있게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처음 270톤에서 현재는 2000톤까지 종자량이 늘었고 향후 4~5년간 5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신품종 종자가 나와도 3년

이면 힘이 약해져서 퇴화된다”며 “품종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빵 만들기 좋은 쌀이 개발됐지만, 제분에 문제가 있어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이사장은 “종자를 5000톤 보유하려면 추가로 땅이 필요하다”며 “20헥타르 추가하는 비용 4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최근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2년 전 카자흐스탄에 3억 원을 들여 50평 규모로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통해 토마토, 오이 등을 재배하니 욕심을 내더라”며 “한국의 스마트팜 자재, 비닐, 양액, 컴퓨터, 종자가 패키지로 수출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바로 옆이 러시아인데 조만간 러시아에 딸기 스마트팜을 수출할 계획”이라며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이 활성화하면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2030 미래비전으로 고객만족, 혁신선도, 현장중심, 공감동행이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3년 연속으로 대단한 성과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곽범수(오른쪽)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대리가 21일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포스코, 6·25 70주년 맞아 16개국 참전용사에 감사패

포스코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16개국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는 작년 하반기부터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참전 감사패를 제작해왔다.

포스코 본사, 해외 주재공관과 포스코 현지 법인 등이 협력해 총 7개 언어로 참전 16개국의 참전 용사를 위한 감사패를 제작했다.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패는 21일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6·25 발발 70주년 기념 헌화 행사’에서 전달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서울시는 7월 1일자로 행정2부시장에 김학진(54·사진) 안전총괄실장을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경주고,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제1회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6년 서울시에 임용돼 시설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도시계획에 ‘공공기어’ 개념을 창설하고 노후기반시설 관리체계를 혁신하면서 친환경 지하도로 건설을 주도한 서울시 대표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안전 분야 전문가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김 실장은 서울시 임명 제정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급 이상 간부 16명 전보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여신금융협 ‘덕분에 챌린지’ 동참

여신금융협회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응원 캠페인이다.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한 뒤, #‘덕분에챌린지’ 등 해시태그를 붙이고 릴레이 형식으로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국민 참여형 챌린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인 비씨카드와 신용정보협회의 지명을 받아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다음 참여자로 회원사인 한국캐피탈을 지명했다. 박은평 기자 pepe@

SK이노베이션 “서산 육쪽마늘 많이 드세요”

판로 확보 어려움 겪는 서산농가 지원... 구내식당 마늘 식단·하이마켓 판매

SK이노베이션은 수확기에 들어간 마늘의 생산 증가와 소비 부진 속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판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육쪽마늘로 유명한 서산 지역의 육쪽마늘을 구매, 판매, 소비하는 방법으로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산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국내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다.

서산은 육쪽마늘로도 유명한 곳으로, 매년 개최하던 마늘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열리지 않아 타격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현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83.4ha 규모 경작지에서 수확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로비에서 ‘서산 6쪽마늘’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한 1144톤 분량의 마늘을 산지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본사 SK서린빌딩과 서산 배터리 사업장

을 비롯 각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서산 농가의 마늘을 소비할 수 있는 식단을 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과 소멸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구성원 참여형 사회안전망 전용물 ‘하이마켓(HiMarket)’에서도 29일부터 서산 육쪽마늘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22일 본사 사옥에서 개최한 ‘하이마켓 쇼케이스’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육쪽마늘 부스를 운영했다.

SK이노베이션은 더 나아가 다음 달 초 본사 사옥으로 농가를 초청해 장터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산 육쪽 마늘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육쪽마늘을 구매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사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공공감사운영단장 홍성재 ◇과장 신규 보임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조성익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손상호 ◇과장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 이성훈 △국토·해양감사국 제1과장 김태경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권은정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오준석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우동호 △지방행정감사1국 제2과장 임상혁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김건유 △특별조사국 제3과장 권오복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정책과장 강승원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담당관 최일동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조윤정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임경훈 △운영지원과장 최익성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장 임정혁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권병희 △공공기관노사관계

- 과장 배영일 △산업안전과장 박종일 △통영지정장 김승환
- ◆해양수산부 ◇국장급 채용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유병연 ◇과장급 전보 △항만개발과장 이상호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조창선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임관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이병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용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동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박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이종철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은라인경제추진단장 이준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김정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유태 △시정감시총괄과장 이동원
- ◆서울시 ◇3급 이상 간부 전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안전총괄실장 한재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

- 홍길 △교통기획관 구종원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안전총괄관 김권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 △주택기획관 이진형 △강북구 부구청장 이방일 △양천구 부구청장 김승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최경용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규하 ◇본부장·실장급 전보 △기업지원실장 황상현 △산단진흥실장 박성길 △구조고도화사업실장 김호중 △개발사업실장 박병규 △인천지역본부장 윤정목 △경기지역본부장 최종태
- ◆한국남동발전 ◇1직급 전보 △감사실장 김문수 △경영관리처장 고경호 △영흥발전본부장 김우용 △OE사업처장 이창식 △인재기술개발원장 이영재 △기획처 미래전략실장 배광욱 △발전처 발전계획실장 이성열 △영동에너지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김동철
- ◆한국석유관리원 ◇부서장급 승진 △감사실장 박준덕 △수도권북부본부장 강대혁 △충북본부장 주동수 ◇부서장급 전보 △기획처 황인하 △검사처장 임의순 △대구경

- 북본부장 이정민 △제주본부장 김희균
- ◆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디지털서비스부장 이익수 △미래발전방안수립 TF부장 조현석 △구미출장소장 이원형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차 실 △인사부 소속 부장(연수) 이동훈 ◇부서장급 전보 △기획부장 엄성용 △투자금융실장 임경섭 △무역금융실장 이원균 △경협사업1부장 장운수 △인천지점장 이영희
- ◆코리아리재보험 ◇승진 △인사총무팀장 윤병익 △상품개발팀장 인태고 △해상보험팀장 이재문 △정산팀장 이종성 △감사팀 부장 박영태 △리스크관리팀 부장 홍태기 ◇전보 △재무회계팀장 정우국 △손익분석팀장/IFRS추진단장(겸) 권승수 △자산운용팀장 나준균 △해외신사업팀장 김형욱 △재물보험1팀장 소병기 △재물보험2팀장 한지현 △특종보험팀장 김기연
- ◆판타지오·판타지오뮤직 ◇겸임 부사장 오광수
- ◆KBS △전략기획실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유건식 △제작2본부 광고국장 권찬중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박용석

부음

- ▲홍윤석 씨 별세, 일표(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희자(이조은포장 대표)·이표(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씨 부친상, 최창림 씨 장인상, 성규(전 서울동부지법 판사)·성완(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씨 조부상 = 27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32-460-9402
- ▲김석용 씨 별세, 하승호(LH 경남지역본부장) 씨 장인상 =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농협 장례식장 301호, 발인 30일 오전 9시, 055-852-0004
- ▲김일수 씨 별세, 김용만(한국기자협회 총괄본부장) 씨 부친상 = 28일, 태릉성심장례식장 4층 백합실, 발인 30일 오전 6시, 010-8703-5114
- ▲윤정자 씨 별세, 박상일(아주산업 대표이사)·박상원(연세지과의원 원장) 씨 모친상 = 26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0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악화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시장화가 가속되거나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연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사이에 세계 감염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를 태세다.

세계 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양측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무역은 크게 위축됐다.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은 우리를 한층 우울하게 만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3개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 후에 'V자 회복'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주요국이 대규모 격리와 감염폭발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할 경우다.

년의 시나리오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중기적 경제재건 플랜을 짜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이다.

지난주 미국 아마존닷컴은 자율주행기 술개발 기업인 미국의 죽스(Zoox)를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가 넘는 가격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인 '레벨4'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추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일본 NTT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리모트 월드' (분산형 사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문수 생산기술연구원 박사(KIAT 산업기술정책자문단장)는 "코로나로 세계의 분절이 가속하고 있어 공급사슬(서플라이체인)의 국내 회귀,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로 산업들을 연결시키는 일이 지금부터의 산업정책에서 최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진입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생존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이정의 노동과 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국공 직고용 사태'에 분노하는 청년들

약속을 이행했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공정한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파장이 크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비정규직의 분투와 애환을 소재로 한 '미생'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 장그레가 주인공이다.

인국공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취준생들의 채용 기회와는 무관하다고 설득에 나섰다.

들릴 뿐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는 형국이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한 고용정책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으로 대비시켜 비정규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이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이다.

작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한 고용시장의 양극화에 있다는 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만해(萬海, 卍海) 한용운(韓龍雲) 명언 "용기 있고 슬기로운 사람 앞에는 역경 따위가 없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 '남'을 자연으로 은유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노래한 시집 '님의 침묵'으로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 고사성어 / 백절불굴(百折不撓)

'백 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정신과 자세를 가리킨다.

"돈 놓고 돈 먹기", "가장 간편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최근 SK바이오팜 일반 청약율 두고 주식 투자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이 같은 말들이 나왔다. 상장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폭등할 것이 확실한데 무리하게라도 증거금을 많이 넣는 것이 '현명한 투자방법'이라는 조언이 투자자 사이를 맴돌았다.

그 결과는 일반 청약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SK바이오팜은 31조 원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6년 전 제일모직이 세운 기록(30조649억 원)을 갈아치웠다.

SK바이오팜 청약 열풍엔 나름 합리적

기자수첩



노우리 자본시장1부/we1228@

열풍과 광풍 사이

근거 요인이 있다. 우선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미 신약으로 개발이 완료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임상 리스크가 적다.

그렇지만 SK바이오팜의 상장 흥행은 '기업 내재 가치'로만 일구어진 결과는 아니다.

없다는 외부적 요인도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로 시장엔 돈이 넘쳤고, 예·적금 등 안전자산은 이미 매력 없는 투자처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부동 자금이 우량 기업 육성과 투자를 위해 모여드는 건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가지 창출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열풍 내부에 분명 자리해 있었던 '무조건'식 투자 흐름이다. '무조건 우상향일 테니', '당분간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간 비슷한 상황에서 주가가 폭등했으니 이번에도 무조건'식 사고방식.

저성장 시대에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릴 것이고, 그나마도 한국인의 투자 열기를 받아낸 부동산마저도 최근 강화된 규제책으로 역할을 지속하기 힘들어졌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시사상식 / 라스트 마일(Last Mile) 통신선송망이 건물 안 가구 단차함과 구내 선로를 거쳐 전화, TV, 컴퓨터 등에 이어지는 마지막 1마일 내외의 최종 구간.

'정신승리'로 경제 부활시킬 수 있나

지난주 동대문 지하상가를 걷다가 운동복을 파는 가게에서 손님과 주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옛된 학생이 어디다 스 운동복을 이리저리 살피며 주인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거 짝퉁(모조품)이죠?"

연륜이 깊어 보이는 사장님이 짧게 답했다.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야."

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에이~ 친구들은 딱 보면 짝퉁인지 알아요. 싸게 주세요."

이 학생의 타박 어린 흥정을 되받아치는 사장님의 대답이 결정적이다.

"그런 믿음이 약한 친구들하고는 놀지 마. 진짜라고 믿으면 다 진짜야. 여기 정찰제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정신승리'라는 표현에 딱 어울리는 상술이지 싶다.

정신승리는 '경기나 경합에서 겨루어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현 정부의 모순적인 경제정책 등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일본은 일찌감치 20여 년 전부터 '정신승리'를 해오고 있다.

안배 유키오 교수의 저서 '일본경제 30년사'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버블로 차오르던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증시 시가총액은 567조 엔, 지가는 1162조 엔 폭증했다. 매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만큼 자산가격이 오르는 누가 봐도 '기형경제'였다.

데스크칼럼

박성호

부국장 겸 산업부장



그러나 1989년 일본 정부는 연차경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힌다. "대체로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수준이고 (지가는) 도쿄권 경제기능 집중에 따른 기대치 상승이다." 버블 가능성을 일축한 일본 정부의 정신승리다.

일본 국민도 만만치 않다.

일본국세청 '민간금융실태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평균급여는 432만 엔이다. 이는 20년 전인 1997년보다 오히려 35만엔 낮은 수준이다. 일본 기준급리는 물러코스터를 거쳐 1995년 9월 연 0.5%로 떨어진 후 최근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데 일본 국민의 은행 사랑은 꿈쩍하지 않는다.

2000년 3월 말 가계금융 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이 54%였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9년 3월 말에도 53%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 급여가 떨어졌고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해 봐야 사실상 손해인데도 말이다. 안전성에 올인하는 일본 국민들의 정신승리 결과물이다.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문재인 정부는 '정신승리' 측면에서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권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도 문제없으며 재정 건전성도 탄탄하다고 주장, 아니 맹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유로화를 쓰는 유럽국가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중 채무비율이 50%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특히 고령사회에 진입하던 연도에 유럽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영국 44.4%, 프랑스 21.2%, 독일 18.5%였다.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달리고 있는 한국으로서 이 수치가 절대 낮지 않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와 여권의 태도는 정신승리 외에 다른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일반 경제정책조차도 '정신승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아무리 규제하고 압박해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기업 학대'이자 '신념 오류'이다. 부동산 가격을 규제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20차례가 넘는 고강도 규제를 했어도 잡지 못한 부동산 시장을 더 세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기억하는 '회상성 조작'이다. 규제 초기 잠깐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만 머리에 남아 있는 셈이다.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 정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신념과 믿음만으로 경제가 부활하는 기적을 바랄 뿐이다.

vicman1203@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아이들은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

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실제로 안전 상륙보건의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식중독균 검사를 받은 인원은 301명이고,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인원은 57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어린이 중 5명은 신장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원생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 유치원이 조금만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A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이 상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소한 것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동안 외출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곳

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뿐이다. 그런데 막상, 믿고 보면 그곳에서 웃음이 아닌 병을 얻어온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고, (부모의) 눈물샘은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 중 일부가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아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국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보관해 뒤야 할 음식 재료를 일부 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당장은 A유치원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수많은 원생과 그 부모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당 유치원은 이번 사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크고 아픈 기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A유치원이 준 아픈 기억을 어른이 되어 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tearand76@

시설

김포·파주 규제 예고, 끝없는 '두더지잡기' 대책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대상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6·17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음에도 불과 며칠도 안 돼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방송에서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김포와 파주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데, 6·17대책을 내놓을 때 김포와 파주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17 대책을 비롯,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와 파주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집값까지 뛰는 등 오히려 시장이 요동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2일 기준 김포 집값은 일주일 사이 1.88% 올랐다. 직전의 주간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서울 강남권 말고도, 성북·노원·강북·도봉·관악 등 비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2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결과다.

과거 정부 대책이 나오면 잠시나마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번에도 광범위한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의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대출 규제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동원됐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거꾸로 반응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두더지잡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게 아니다"라며, 계속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다.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커녕, 시장의 불안과 혼란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할수록 수요자들은 내집을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낮기 전에 집을 사려 한다. 시장의 내성(耐性)과 부작용만 키우고, 수요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 누르는 곳의 집값이 더 뛰어오르는 악순환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미리 보는 한주 美 6월 고용·제조업 지표 발표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 하락, 대외수출여건 악화 등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공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과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의 6월 고용과 제조업 지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실제 생산과 기업의 체감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또한 유틸리티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의 윤곽도 드러나 관심이 크다.

우선 통계청은 30일(화)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5%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6.0%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를 내놓는다. BSI는 지난해 12월(76)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다가 5월(53) 겨우 반등했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목)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한은은 3일(금) 6

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유틸리티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구체적 계획을 이번 주에 밝힐 예정이다. 리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위원회는 30일 처음으로 열린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경제 재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6월 고용과 제조업 지표 결과에 따라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요동칠 수 있다.

미 노동부는 독립기념일(다음 달 3일) 휴일로 하루 이른 2일(목·미 동부시간) 6월 고용지표를 발표한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0일 하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부양책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이 크다. 또한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사록도 다음 달 1일 공개된다.

정리=장대명 기자 dmja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25년 동안 SK텔레콤 2G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애 첫 휴대폰 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설레던 당신

정성스럽게 만든 이모티콘으로

처음 SMS를 보내던 당신

꿈 많던 스무 살

TTL과 함께하던 당신

침대에서 밤새 속삭이다

잠이 들던 당신

당신의 첫 번째 이동통신으로 함께한 25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한 초시대를 만들기 위해

SK텔레콤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대를 만듭니다